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김 광 수 (북한학박사)
(육군사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인천상륙 이전 북한의 인천-서울
방어와 상황 판단
- III. 인천상륙 이후의 북한군의 대응
- IV. 북한 방어에 대한 소련의 직접 개입
- V. 맺음말

〈저서〉 세계전쟁사부도, 육군50년사, 손자병법, 군사사상사, 세계전쟁사 등 다수

〈논문〉 한국전쟁 개전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낙동강 전선에서 패배이후
북한 인민군의 재편과 구조변화, 군사학문체계 고찰 등 다수

I. 머 리 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전쟁의 전황을 일거에 바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북한 정권을 패망의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작전 구상부터 계획 입안 과정, 상륙부대로 지정된 미 제10군단과 이를 지원하는 미 극동해군, 미 제5공군의 준비 과정, 그리고 인천 상륙 이후의 서울까지의 작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상세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¹⁾ 또한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한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돌백 정책의 대두, 그리고 맥아더의 중국 참전 가능성에 대한 저평가 및 조기 승리 가능성에 대한 과신 등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이에 반해 북한이 이 작전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인천상륙 이전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북한군이 허망하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된 바가 없다.

인천상륙 후 북한의 급속한 붕괴 이유에 관해 연구자들은 그것을 맥아더 사령부가 북한을 기만하고 기습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실제로 북한, 소련측이 인천상륙 전후에 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왜 포위를 피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다. 오직 박명림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

1)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존의 주요 전문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서가 있다. Lynn Montross & Nicholas A.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Washington D. C.: Headquarters U. S. Marine Corps, 195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S GPO, 1960), Ch. 25; Robert Heintz, Jr., *Victory At High Tide: The Inchon Seoul Campaign* (Philadelphia and New York: J. B. Lippincott Co., 19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최형곤), 『인천상륙작전』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일본 육전사보급회 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 4 『인천상륙작전』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Shelby L. Stanton, *America's Tenth Legion: X Corps in Korea, 1950* (Berryville VA: Presidio Press, 1989), 1-5장.

2)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1967), p.561;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Boston: Hutton Mufflin Company, 1969), pp.142~143;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1987), pp. 320-321; Clayton James, *Refighting the Last War: Command and Crisis in Korea, 1950-1953*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p.178.

하였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 제10군단이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무려 13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바로 이 사실과 인천 주변에 주둔했던 북한군 일부 부대들의 명령과 작전보고서를 확인한 후 북한군이 나름대로 인천상륙 이전에 상륙대책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은 인천상륙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인천상륙은 기습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³⁾ 만약 맥아더가 기습에 성공했다면 미 제10군단이 서울을 점령하는데 13일이나 걸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그의 판단 근거다. 그의 문제 제기 자체는 참신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결론은 너무나 지엽적인 증거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도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박명림의 주장은 우선 당시 평양에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군사작전을 조연했던 소련 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 장군 자신의 회고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다. 부산을 방어하고 있던 미군이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리란 사실을 짐작은 했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공격 부대 규모를 알 수는 없었다.

…신속한 인천상륙작전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 대규모의 해군부대가 상륙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남쪽 주둔[낙동강 전선-필자] 병력에 대한 통제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과의 통신은 아직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지만 그 곳에서의 소식은 점점 처참한 것이었다….⁴⁾

또한 소련군 총참모부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현황, 획득된 정보 등을 그날 정리한 전쟁일지에도 1950년 9월 13일 이전까지 인천 상륙의 징후를 언급하는 어떤 기술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9월 13일 10여 척의 미 함정이 인천에 포격을 가하기 위해 인천항에 접근했을 때부터 북한군은 상륙작전 가능성에

3)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제4권 제2호(1997), 254쪽;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출판, 2002), 395~442쪽 참조. 이 책에서 박명림은 변함없이 인천상륙이 기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96쪽. 최근에 이상호는 박명림의 사료읽기가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2006년), 141~175쪽.

4) 가브릴 코로트코프, 어건주 옮김, 『스탈린과 김일성』(서울: 동아일보사, 1993), 제2권, 65~66쪽.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소련군 총참모부의 일지 중 상륙작전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해 인용한 것이다.⁵⁾

1950년 9월 13일

[중략]

적은 제물포[인천-필자] 지역에서 8시간 동안 포에 의한 공격준비사격을 시행한 후 상륙부대를 상륙시키고자 하였으나 격퇴되었다.

서울 지역으로부터 제18보병여단이 제물포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1950년 9월 14일

적은 하루 종일 제물포 지역에서 함정으로부터 강력한 함포사격을 가했고 공중 공격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육전대를 상륙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안 방어화력에 의해 이러한 기도가 격퇴되었다.

미 공군은 제물포 항과 서울을 폭격하였다.

군산과 목포지역에서 적은 소규모 해병대가 해안지역에 진출하여 정찰을 시행하였다.

상륙한 정찰 그룹은 방어하던 인민군 부대들에 의해 섬멸되었다.

제물포 지역에서 적 함대는 해안에 포격을 가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제물포 지역에서 미군 제10군단이 해안 상륙부대로써 상륙을 시행하였다. 이 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영국군 ‘코만도’ 부대, 남조선 해병 구분대로 구성되었다.

[하략]

5) TsAVMTs GSh VS RF (Arkhiv-TsAMO-A) Fond 16, Opis 3139, Delo 133 "Zhurnal boevykh deistvii v Koree s 28 iyunia 1950 g. po 31 dekabria 1951 g." (조선전쟁전투일보, 1950년 6월 28일(25일)-1951년 12월 31일), 1950년 9월 13~15일자. 이하에서 이 문서는 Zhurnal로 약칭.

9월 15일 일지에는 상륙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측이 인천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9월 13일, 14일 양일간에 미 해·공군의 인천지역에 대한 폭격 및 포격, 군산과 목포 지역에 대한 해안 정찰 등이 신경을 곤두서게 했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9월 14일까지는 어떤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뒤에 자세하게 보게 되듯이 9월 13일에 제18사단 1개 연대를 내보낸 것은 상륙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인천상륙’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기습은 확실한 것이었다. 또한 인천상륙 작전 후 서울 점령까지의 13일간의 시간이 걸렸던 점은 미군의 작전 수행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관련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별개의 문제였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박명림은 인천상륙이 기습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인천상륙 작전 이후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사단들이 포위상태에 빠졌으며, 왜 북한군 전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습이 아니고 북한군 수뇌부가 맥아더의 상륙작전의 기도를 미리 읽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비한 조치가 뒤따라야 했다. 그렇다면 인천상륙 이후 미 제10군단이 서울에 접근하기까지 10여 일 동안 북한군 지도부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떻게 작전을 지도했는가? 소련측과 중국측은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북한 지도부내에서 누구의 어떤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낙동강 방면의 북한군 주력을 UN군의 포위망 안에 빠지게 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북한군의 붕괴 배경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천상륙 작전 이전의 인천과 서울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방어의 전모와 북한군 수뇌부의 전략판단, 인천상륙 이후 북한군 지도부의 작전적, 전략적 지도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6년에 쓴 한 논문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 바 있지만 그 논문에서는 주제와 시간적 범위가 광범위했던 관계로 인천상륙을 전후한 시기의 북한군의 작전적, 전략적 지도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지역 북한군부대의 사료, 관련자 증언, 구 소련문서들을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UN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북한군 고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사건을 보다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이에 입각해 그들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간략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사전 대응에 실패하고, 상륙 이후 북한군 주력이 포위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일성과 북한군 수뇌부가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저울질하지 못하고 ‘부산점령을 위한 최후공세’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집착한 결과였다.

그리고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 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II. 인천상륙 이전 북한의 인천 - 서울 방어와 상황 판단

김일성은 개전 초부터 크게 보아 두 번에 걸쳐서 미군의 후방 상륙에 대비했다. 그것은 1950년 7월 말 그리고 8월 말이었다.⁶⁾ 그때마다 그는 미군의 후방상륙 가능성을 말하면서 해안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점령한 남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해안에 대한 방어 강화 지시가 이루어졌고 충분치 못하나마 방어 강화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9월 초부터 작전의 우선권이 낙동강 전선에 두어졌고 해안방어 노력은 최고사령부의 고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8월 하순에 김일성은 미군의 반격이 있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만약 상륙작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항구 중에서 인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9월 초부터 15일까지는 낙동강선에서의 공세에 집착해 있었고, 모택동의 철수 조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방어부대에는 상륙가능성이 있으니 방어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북한군 수뇌부는 이곳에 병력을 증강하지는 않았다.⁷⁾ 당시 인천방어여단 문화부여단장이었던 장학봉의 회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8월 말에 상부에서는 인천상륙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9월 초에 상부에서는 인천방어강화를 위한 병력도 증강하지 않았고, 방어진지 공사도 물자 지원 부족으로 부실했다. 9월 초에는 여단장 리청송 소장이 2개 대대의 병력을 이끌고 군산으로 내려갔다. 그는 리청송의 출발 이후 여단장 대리를 맡고 있었다. 인천과 월미도에는 수일간에 걸쳐 미

6) 김일성, 「지방방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7월 29일), 『김일성전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79~180쪽; 김일성,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내무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8월 29일), 『김일성전집』 제12권, 248~251쪽.

7)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Lawrence,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p.72~73; 이상조-황용주 대담, “김일성은 모택동의 후퇴충고를 묵살했다”, 『월간중앙』 1990년 8월호, 292~293쪽.

공군과 해군의 엄청난 폭격과 포격이 계속되었다. 장학봉은 9월 15일 아침에 미군의 엄청난 규모의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지휘소에서 “전에는 예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을 멍하니 내려다만 보았다.⁸⁾

인천상륙작전이 있기까지 북한의 전쟁지도상의 실책은 그들이 미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비가 실질적이지 못했고 또한 너무 미약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들은 8월 중순부터 일본의 사가미 해안에서 미군이 상륙작전 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9월 15일에 실제 시행된 작전과 같은 정도의 규모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없었다. 인천은 상륙 후보지 중 가능성이 높은 한 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가 없던 북한군 내에서는 상륙 예상지점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었다. 금천 지역에 있었던 제27여단의 이철궁 중좌에 의하면 9월 초에 북한군 고위군관들 사이에는 상륙 가능 지역으로 원산, 인천, 목포 등이 꼽히고 있었다.⁹⁾ 위의 언급했던 장학봉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9월 초에 인천방어여단장 리청송 소장은 2개 대대 병력을 이끌고 군산항으로 갔다. 군산도 상륙 가능지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천지구방어사령관 박훈일은 예하 부대들에게 8월 말과 9월 9일에 각각 명령을 내려 인천에 적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으니 강화된 토목화점들을 구축해 대비할 것을 명령했지만, 막상 인천상륙 직전에는 특별한 경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¹⁰⁾ 다만 박훈일의 명령에 의해 예하의 부대들은 예성강 하구에서 금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각 지역에 강화된 참호를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지구방어사령부 예하에 소속되어 인천북쪽의 강화도와 김포의 방어를 맡고 있던 제107연대장 최한은 9월 13일과 9월 14일 낮까지는 인천항과 월미도에 적의 계속된 항공공격과 적 함선 “10여 척”이 출현해 함포사격을 가하는 것으로 보아 인천에

8)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579~580쪽. 9월 7일 경 여단장 리청송 소장이 군산으로 병력을 이끌고 내려갔다는 사실은 북한측이 인천이 꼭 상륙지점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9) 제27여단 이철궁 중좌 포로 진술. Headquarters X Corps, “Operation Chromite”(15 August - 30 September 1950), p.28.

10) 전선지구경비사령관 박훈일 참모장 백락철, 「전투명령」 No. 106 (1950. 8. 31 서울에서); 인천지구 방어사령관 박훈일 참모장 백락철, 「전투명령」 No. 3 (1950. 8. 28 서울에서); 인천지구 방어사령관 박훈일, 「전투명령」 No. 4 (1950. 9. 9. 서울에서). 이 명령들의 사료 출처는 NAR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제107보연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상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하부대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¹¹⁾ 미 함정들이 퇴각하자 상륙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했다. 9월 13일에는 예하의 제32대대에게 대무의도, 용유도에 나가 섬에 있는 소규모 적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¹²⁾ 9월 14일에는 “적이 우리 주의를 인천에 집중시키고 아산, 서산 방면과 강화도 김포-부평계선에서 상륙을 실시할 가능성이 예견된다”고 말하며 그 방면의 방어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¹³⁾ 상륙 하루 전에 월미도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진 것, 미 순양함들이 인천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고 사라진 것 등을 적의 기만으로 보았던 것이다. 9월 14일 제107경비연대장은 상륙 규모도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예하 부대들에게 주변의 섬에 흩어져 있는 적에 대해 토벌 계획을 세울 것을 명령했다.¹⁴⁾ 적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음은 틀림없다. 또한 인천에 있던 부대들은 조만간 상륙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차후에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의 상륙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음날 상륙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적의 의도를 몰라 고민하다가 다음날 새벽 260여 척의 함정이 동원된 상륙공격을 받았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실제 전투를 수행할만한 강력한 부대를 후방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북한의 작전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한 소련의 연구는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북한군 지휘부는 서해안 지역의 반상륙대책을 마련하는데 마땅히 돌려야 할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군 부대들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케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⁵⁾

인천 지역에 미군이 대규모로 상륙할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대비는 너무나 미약했다. 이곳에는 1개의 해병연대가 76밀리 포 7문, 37밀리 고사포 6문과 약 3,000명의 병력을 가진 독립 보병연대가 서쪽 항구를 방어하고 있었다. 인천항과 제방으로 연결된 월미도에는 76밀리 포 3문, 37밀리 포 2문으로 증강된 해군 육전대

11) 제107보병연대장 최한 참모장 김영모, 「명령 No. 9」 (1950. 9. 13 12:45 김포에서); 「명령 No. 14」 (1950. 9. 14 17:00 김포에서). 이 문건의 사료 출처는 NAR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제107보병연대 참모부, 「하급명령서철」. 이하 인용되는 제107보병연대장의 명령서는 모두 동일함.

12) 제107보병연대장 최한 참모장 김영모, 「명령 No. 10」 (1950. 9. 13 김포에서).

13) 제107보병연대장 최한 참모장 김영모, 「명령 No. 11」 (1950. 9. 14 20:00 김포에서).

14) 제107보병연대장 최한 참모장 김영모, 「명령 No. 12」 (1950. 9. 14 김포에서).

15) S. S. Lototskii & N. L. Volkovskii(eds.), *Voina v Koree 1950-1953* (Sankt-Petersburg: Poligon, 2000), p. 121. 이하 이 책은 *Voina v Koree 1950-1953*으로 축약인용.

2개 중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인천 지역의 방어진지에는 34개의 토치카가 준비되었다. 진지공사는 40~50%만 이루어졌다. 해안으로부터 항구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접촉식 부유기뢰 26개가 설치되었다.¹⁶⁾ 인천항으로부터 강화도와 김포 해안 지대에는 제107경비연대가 해안을 경비하고 있었으나, 이 경비연대의 훈련이나 장비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 연대에는 한 개의 포병대대가 배속되었다.¹⁷⁾ 전선지구경비사령부(후에 인천지구방어사령관) 이하의 다른 경비연대인 제106경비연대는 8월 말에 홍성으로 이동하여 충청도해안의 방어를 책임지라는 명령을 받고¹⁸⁾ 그곳으로 옮겨갔다.

인천 후방의 내륙지역에는 잡다한 행정부대와 신편 부대들이 집결되어 있었다. 서울 지역에는 1개의 신편 전차연대가 있었고, 수원지역에는 창설 중에 있었던 제70독립보병연대, 그리고 1개의 독립전차연대가 있었으나 이들은 인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울 지역에는 서울 위수부대인 제18보병사단이 8월 말에 창설되어 신병 훈련 중에 있었다. 서울 시내에는 한 개의 철도관리대대와 제31서울경비연대, 전선사령부 직속의 공병대대가 있었다. 공병대대를 제외한다면 이 부대들은 전투부대라기보다는 행정 또는 경비부대였다.¹⁹⁾ 서울과 인천지역에 훈련이 되지 않은 약 2만 명의 부대가 있었던 것이다.

서울 지역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들에는 8월 말부터 해안 방어를 위해 신편 부대들이 창설되고 있었다. 철원에는 제25교육연대가, 그리고 개성에는 제27교육연대가 새로 창설되어 부대는 훈련 중에 있었다. 사리원에는 제26교육연대가 있었다. 해주, 진남포, 원산에는 각각 1개 전차연대(각각 전차 15~16대 보유)들이 신편되어 배치되었다. 해주와 개성에는 편제상으로는 제17기계화사단에 소속되었으나, 그중 제17땅크여단만이 9월공세에 참가하기 위해 8월 말에 안동으로 내려감에 따라 남아 있던 신편 제33보병연대와 제34보병연대가 있었다.

16) *Ibid.*, p.120.

17) 전선지구 경비사령관 박훈일 참모장 백락칠, 「전투명령」 No.105 (1950. 8. 31 서울에서). 이 제7포병대대는 강화 교동도, 김포, 인화리 3곳에 중대 규모로 배치되었다. 이 사료 출처는 NAR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제107보령 참모부, 「상급명령서철」이며 이하 인용되는 박훈일의 명령서는 모두 동일함.

18) 전선지구 경비사령관 박훈일 참모장 백락칠, 「전투명령」 No.100(1950. 8. 27 16:00 서울에서).

19) *Voina v Koree 1950~1953*, p.120. 공병부대에 관해서는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1), 제1권, 503쪽.

원산에는 1개의 해안 육전여단, 그리고 진남포에 1개 육전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해군 육전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들은 8월 말부터 창설된 부대들로서 훈련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태반이 전투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다.²⁰⁾

9월 공세가 9월 8일경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다음의 ‘최후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후방의 방어에 신경 쓸 수 없었다. 후방에 있던 ‘나남부대’, ‘제98독립연대’들은 모두 낙동강의 전선부대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서울을 통과하여 남으로 행군하고 있었다.²¹⁾

인천에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는 미 극동해군 함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공격준비를 위해 인천항에 대한 함포사격을 개시하기 시작한 것은 9월 13일부터였다. 그러나 미 극동군은 제10군단의 인천 상륙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인천이 상륙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기만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대한 사전 폭격, 포격을 시행했다. 항공 폭격의 강도는 진남포, 인천, 군산 지역을 30:40:30으로 배분함으로써 인천이 특히, 두드러지지 않도록 했다. 항공 폭격은 서울, 수원 등의 주변지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도로와 철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항공 폭격 구역을 할당하고 조직적으로 폭격함으로써 인천을 고립시켰다. 월미도에는 9월 10, 11, 12일 수십 대의 항공기가 폭격을 퍼부어 불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일부 동해안에서 움직이는 함선들은 주문진, 삼척에 대한 대대적인 함포사격을 했다. 9월 12일~14일 사이에는 군산, 목포, 포항 북쪽 등에 대한 소규모 특수부대를 상륙시켜 정찰하게 함으로써 북한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자 했다. 적이 상륙작전을 예상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륙작전의 기획자인 미 극동군 작전부장 라이트 준장은 상륙 이틀 전에 상륙작전은 기정사실로 하되, 그 시기가 10월 중이 될 것이라는 역선전을 흘려 신문기자들이 기사화하도록 하였다.²²⁾

인천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면밀한 정찰은 유진 클라크(Eugene Clark) 미 해군 중위와 국군의 계인주 대령, KLO의 최규봉 대장이 이끄는 한·미 유격부대가

20) *Voina v Koree 1950~1953*, p.120; Zhurnal, 1950년 9월 15-30일자; 군사편찬연구소 역/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제1권, 382~386쪽, 제2권, 35~36쪽. 이하 이 책은 『라주바예프 보고서』로 축약 인용.

21) 「미 극동군 포로심문보고서」, No. 1555, 1556, 1557, 군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자료집』 제25권, 461~462, 463~464, 465~467쪽;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1999), 247쪽. 이 두 개 부대들은 전선 투입을 위한 많은 예비부대들의 일부다.

22) 자세한 것은, 김광수, 위의 논문, 234~237쪽.

영흥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 수집과 유격활동을 시행했다. 그들은 민간인으로 가장한 일부 인원들을 발동선으로 인천 지역에 침투시켜 월미도 및 인천항 부두의 방어배치, 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했다. 한국해군과 미 해군도 8월 18일과 20일에 덕적도, 영흥도에 1개 중대 규모의 정찰대를 상륙시켜 정보수집 작전을 벌였다.²³⁾ 이들의 행동이 인천과 경기도 해안에 배치된 북한 경비부대들의 신경을 건드렸으나 유격부대들은 인천에 상륙을 저지할만한 병력과 시설이 증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수로의 부유기뢰의 위치까지 파악해 이를 미 극동사령부에 보고했다.²⁴⁾ 맥아더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천 지역의 방어병력이 소수이고 방어태세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²⁵⁾

북한 지도부와 소련 군사고문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소련군 총참모부는 9월 13일 미 해군 함정 10여 척이 인천에 나타나 장시간 포격을 시행하자 바짝 긴장하였다. 사실 미군의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9월 13일과 14일에 인천 앞바다에 나타나 함포사격을 할 때부터 무언가 불안을 느꼈지만 그것이 대규모 상륙의 전조라고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9월 13일 인천 방어 부대들은 미군의 함포사격에 대해 그것이 상륙기도라고 사령부에 보고했다. 이 무선보고는 동경의 미군 감청반에 의해 해독되었다. 인천방어부대의 전문은 “유엔군 함대가 인천을 향해서 진입중이니 해안방어 포대원들은 즉각 전투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거의 같은 시각에 북한군의 한 사령부로부터 평양의 최고사령부로 급하게 보내는 평문 전문이 감청되었다. 내용은 “적의 함정들이 인천에 접근 중. 다수의 비행기가 월미도를 폭격 중. 유엔군의 상륙기도가 극히 농후하여 나의 휘하의 전 부대에 전투준비를 명령 하였음. 나의 휘하의 전 부대는 진지에 투입되어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며 적이 상륙을 기도하면 적을 저지, 격멸할 것임”이었다. 동경의 미 극동사령부에서는 이에 대해 북한이 상륙계획을 눈치 챌 것이 아닌가 긴장했으나 북한의 대

23)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제2권 (서울: 을유문화사, 1977), 394~403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87~88쪽.

24) 이창건, 『KLO의 한국전 비사』 (서울: 지성사, 2005), 53~71쪽.

25) 인천상륙 작전계획인 크로마이트 계획의 정보부록을 보면 인천항 및 월미도의 북한군 방어 상태에 관해서는 자세한 지도 위에 포 한 문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항공정찰사진은 인천의 대부분의 시설물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GHQ, UNC, Appendix 1 To Annex C (Intelligence) of Operations Order No. 1.

규모적인 대응은 없었다.²⁶⁾ 그러나 실제로 서울의 인민군 전선사령부(후방지휘소)는 인천에 미군이 8시간에 걸쳐 포격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날 서울에 있던 제18사단의 부대들을 인천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다.²⁷⁾ 이 명령에 따라 9월 14일 새벽 서울의 전선사령부는 제18보병사단 한 개 연대[제22연대-필자]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냈다.²⁸⁾ 그러나 서울-인천 가도에서 이 부대들은 엄청난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예하 연대들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고 결국 인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²⁹⁾ 9월 14일에도 인천 외항으로부터 미군의 대 함대가 함포 사격을 했으며 군산, 목포 지역에서 미군의 소규모 상륙 부대가 정찰을 시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인천의 현지 해안방어부대들은 “인천에서 적의 함대가 육전대를 상륙시키려 하자 했지만 해안 방어부대의 화력에 의해 격퇴되었다”고 보고했다.³⁰⁾ 그러나 인민군 최고사령부나 전선사령부는 인천으로 추가적인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다. 아마도 아직 상륙부대의 규모는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소규모 상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Ⅲ. 인천상륙 이후의 북한군의 대응

그러나 9월 15일 실제로 상륙작전을 위해 동원된 미군 상륙부대들은 북한지도부나 소련고문단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순양함과 구축함을 포함해 260척의 함선이 동원되었다. 상륙부대는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1해병연대, 미 제7사단, 국군 제17연대 등으로 전투부대는 약 5만 명이었고, 지원부대를 포함해 7만 5천 명을 헤아렸다. 이 방면에 동원된 화포의 숫자는 1,600문이었고, 탱크의 숫자는 500대 이상이였다.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고 매일 수백 소티의 항공 폭격이 이루어졌다. 상륙부대는 미 제10군단

26)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4: 인천상륙작전』 (서울: 명성출판사, 1986), 124쪽;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hinehart and Company, Inc., 1952), p.202.

27) Zhurnal, 1950년 9월 13일자.

28)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제2권, 65쪽;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502쪽.

29) *Voina v Koree 1950~1953*, p.123.

30) Zhurnal, 1950년 9월 14일자.

장 아몬드 소장이 지휘했으나 상륙작전 당일에는 맥아더가 직접 나서 부대의 작전을 지켜보았다. 9월 13일과 14일에 순양함, 구축함이 함포사격으로 인천 항구를 초토화한 후 미 제1해병사단은 9월 15일 05시 30분부터 월미도에 대한 상륙을 전개하여 이날 저녁까지 월미도, 인천항을 포함한 3개의 해안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인천의 비어수로로 진입하면서 몇 척의 함정이 북한군 포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으나 곧 수리되었다. 미 해군은 상륙작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북한군의 부유 기뢰를 쉽게 찾아내어 모두 파괴해버렸다.

이미 미군의 인천 상륙이 뚜렷해진 9월 15일 새벽부터 서울의 전선사령부 참모부(후방지휘소)에서는 바쁘게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소련군 총참모부에 보고된 바 북한군이 취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제18보병여단의 3개 대대를 7대의 탱크와 함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낼 것, 둘째, 수원지역에서 16대의 탱크를 가진 한 개의 독립연대[제70독립연대-필자]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 셋째, 사리원으로부터 한 개의 독립 보병연대[제78독립연대-필자]를 서울로 전환할 것, 넷째, 철원으로부터 제25교육여단을 서울로 전환할 것(여단은 완전히 장비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장비는 차량으로 서울로 보내졌음).”³¹⁾ 주간의 폭격을 피해 제18여단의 1개 연대는 연대장의 인솔 하에 9월 15일 새벽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으나 소사에서 미군 항공기의 맹폭을 받아 연대의 병사 및 장교들은 무기를 버리고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뿔뿔이 흩어져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숨어버렸다.³²⁾ 인천에서는 이날 제64해안육전연대와 제18사단의 2개 대대가 상륙한 미군에 대항해 전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으로 시내로부터 물러나고 말았다.³³⁾ 인천을 방어하던 제64육전연대는 다음날 인천 시가에서 국군 해병 제1연대에 저항하며 전투를 벌였으나, “전원이 전사”했다고 보고되었다. 제107경비연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³⁴⁾

미군의 상륙이 이루어진 9월 15일 낮 김일성은 인천의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받았다고 해도 상륙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짐작도 못한 채 상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그날 김일성은 내각 제26차 전원회의를 열

31) Zhurnal, 1950년 9월 15일자.

32)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230쪽.

33) Zhurnal, 1950년 9월 15일자.

34)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230쪽.

고 전시조건에 맞게 체신사업을 개선 강화할 대책에 대해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김일성이 결론을 맺으며 한 연설을 보면 인천상륙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분위기조차 느낄 수 없다.³⁵⁾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 부대의 전모가 파악됨에 따라 북한군 지휘부는 9월 16일부터는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날 북한군이 취한 조치는 철원에 있던 제25교육여단뿐만 아니라 원산으로부터 한 개의 독립연대를 서울로 전환하여 서울 방어를 강화하게 한 것과, 포항 북쪽에 상륙한 적 부대에 대한 섬멸 임무를 제2군집단(군단)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오후 들어 소련군 감청부대는 9월 16일 19시부터 국군 제1군단, 제2군단이 인천 지역에 상륙한 부대들과 협동을 위해 반격으로 전환하였으며, 미 제1기병사단은 이날 왜관을 점령하고, 국군 수도사단이 안강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³⁶⁾ 인천에서의 공격과 낙동강에서의 반격이 동시에 시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낮의 인천에서의 전투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제18사단의 일부 부대는 제42독립땅크연대의 전차 16대와 함께 인천 탈환작전에 나섰으나, 이날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전투에서 전차 16대는 미군의 전차, 대전차포 팀, 그리고 항공기 공격을 받아 모두 파괴되고 불탔다. 제18사단의 한 개 연대는 미 제1해병연대의 공격을 받아 분산되어 소사동쪽까지 밀려났다.³⁷⁾ 또한 미 제5해병연대는 김포비행장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 해왔고 비행장 외곽까지 도달했다. 인천 시내에서는 국군 제1해병연대가 저항하는 북한군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인천이 UN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상황은 당분간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미 제8군은 9월 16일부터 반격으로 전환했으나 북한군 부대들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진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고지들이 UN군 측에 빼앗기기도 하였지만 아직 그것은 작은 전술적인 의미를 갖는 손실일 뿐이었다. 9월 17일까지도 북한군 제1군집단(군단)은 낙동강 동안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제2군집단(군단)도 북부에서 이전의 산악진지 지대를 확보하고 있었다.³⁸⁾

35) 김일성, 「전시조건에 맞게 체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50년 9월 15일), 『김일성전집』 제12권, 299~307쪽.

36) Zhurnal, 1950년 9월 16일자.

37) Zhurnal, 1950년 9월 17일자; *Voina v Koree 1950~1953*, p.123.

38) 자세한 전황은,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437~456쪽.

이 무렵 북한군 지도부는 중요한 작전 전략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북경의 주은래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북한군에게는 대략 두 가지 방책의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었다. 첫 번째 방책은 서울에 10만 명 정도의 충분한 병력이 있다면 주변의 부대들을 끌어 모아 서울과 인천 방어에 투입하는 한편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를 피함으로써 일단 인천에 상륙한 적을 격퇴한 후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공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 방책은 다만 상륙부대와 대등하거나 우세한 후방 예비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성공 가능한 것이었다. 두 번째 방책은 낙동강에서 일부 부대로 방어선을 축소하는 한편 주력 중의 몇 개 사단을 끌어올려 후방에 있는 예비부대들과 결합해 인천-서울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인천에 상륙한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그동안 신속히 낙동강전선의 주력부대를 철수시켜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방어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주은래는 9월 18일 북경주재 소련대사 로신을 통해 스탈린에게 북한이 인천상륙에 관한 정보들을 전해주지 않아 정확한 상황에 기초할 수 없지만 9월 초까지의 낙동강 전선에서의 상황 전개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 이같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대안에 관한 중국의 시각을 제시하며, 북한을 위해서는 후자의 방책이 현실적이라고 전달했다.³⁹⁾

인천상륙 이후 이틀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던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인천상륙 이틀 후에야 인천과 서울 방어에 대한 얼마간 조직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9월 17일에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김일성은 인천과 서울 지역 방어를 전담케 하고자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사령관으로 하는 서해안방어사령부를 구성했다.⁴⁰⁾ 두 번째로 김일성은 앞으로 장기 항전을 전개할 예비 사단들을 창설하는 계획을 입안하였다. 그는 전선사령부와 민족보위상이 책임지고 남한 지역에서 동원한 인원으로 9개 사단을, 북한 지역에서 동원한 인원으로 6개 사단을 편성

39)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1950년 9월 18일), A. V. Torkunov, *Zagadochinaia voina: Koreiskaia konflikt 1950~1953 godov* (Moskva: ROSSPEN, 2000), pp.106~108. 원 출처는 AP RF, Fond 45, Opis 1, Delo 331, Ll. 123~126. 이 전문에 대해 그로미코는 9월 20일 소련도 중국측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같은 책, pp.108~109.

40)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116쪽; 『조국해방전쟁사 2』, 22쪽. 북한 공간사들은 일관되게 서해안방어사령부를 창설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숨겨왔다. 아마도 인천상륙에 대한 김일성의 때늦은 조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나 소련자료들은 그 사령부가 창설된 것과 사령관으로 최용건이 임명된 것이 9월 17일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Zhurnal, 1950년 9월 17일자; *Voina v Koree 1950~1953*, p. 125. 최용건은 인천상륙 전야에 시찰차 서울의 전선사령부에 내려와 있다가 9월 17일에 서해안방어사령관직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491~492쪽 참조.

한다는 안을 이날 열린 정치위원회에서 제시한 후, 민족보위상과 전선사령관에게 9월 30일까지 사단 창설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⁴¹⁾ 그것이 김일성과 최고사령부의 독자적 아이디어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소련군사고문관의 조언에 입각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현실성이 없는 계획임에 틀림없었다. 단시일내에 15개의 사단 편성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고 훈련된 지휘관, 참모들, 군관들을 충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조치 외에 그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최고사령부 총참모부의 강화, 철도의 군사화, 남반부의 인민유격대활동과 당단체 사업의 강화, 인민생활의 안정이라는 4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김일성의 최고사령부는 9월 17일 상륙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북경의 중국측이 독자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던 방책들 중 첫 번째 방책을 선택했다. 김일성은 9월 17일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3일부터는 수백 척의 함선과 약 1,000대의 비행기, 5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이미 인천에 상륙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의 기도는 인천과 서울, 원주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고 전선의 북한군주력부대를 포위 소멸하여 단시일 내에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것”이라고 전선 상황을 정치위원들에게 알렸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동강으로부터 주력 사단들을 후퇴시킨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다. 아직도 김일성의 뇌리에는 ‘부산을 향한 최후 공세’의 가능성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용건에게 주어진 권한은 단지 후방에 있는 모든 부대들을 동원하여 인천-서울의 방어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날 최용건은 서울에서 당-정-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인천과 서울의 방어를 일층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해안방어사령관 최용건이 9월 17일 작전회의를 소집해 결정하고 9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 번째는 서울 지역에 있는

41) 김일성,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9월 17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09쪽.

42) 위의 책, 308쪽. 9월 15일에 소련군 총참모부는 여러 첩보를 종합하여 상륙군의 규모가 상당한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일성도 소련측의 정보를 통해 상륙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9월 15일자 소련군 총참모부의 작전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물포 지역에서 미군 제10군단이 해안 상륙부대로써 상륙을 시행하였다. 이 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영국군 ‘코만도’ 부대, 남조선 해병 구분대로 구성되었다.” Zhurnal, 1950년 9월 15일자.

부대로 한강 하류의 북한과 영등포 서쪽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방어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⁴³⁾

- 서울 서북쪽 25킬로미터 지점인 예성강과 한강의 하구에 1개의 국경경비연대
- 행주를 포함하여 행주에서 한강교까지는 제78독립보병연대와 제31서울 경비연대
- 인천으로부터 영등포까지의 접근로에는 인천으로부터 후퇴한 제18사단의 2개 연대
- 수원에는 편성중인 제70독립보병연대

이러한 조치 외에 전선사령부 산하 독립 공병대대에게는 인천-서울간 도로, 인천-수원간 도로상에 대인지뢰 및 대전차지뢰를 부설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⁴⁴⁾

두 번째로 최용건은 9월 15일, 16일에 내려진 전선사령부 후방지휘소(서울)의 병력 증강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서울 외곽으로부터 더 많은 부대들을 서울로 이동하도록 명했다. 이미 이동명령이 내려진 제25교육연대 이외에, 사리원에 있던 제27교육연대와 4개의 전차연대(연대별 15대의 전차 보유)에게 서울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 그 4개의 전차연대는 진남포에 있었던 제41독립땅크연대, 원산에 있었던 제44독립땅크연대, 해주에 있었던 제45독립땅크연대, 수원에 있던 제46독립땅크연대들이었다.⁴⁵⁾ 그러나 이 부대들은 서울로의 이동 중에 미 공군의 계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동이 지연되었다. 9월 18일까지 서울에 도착한 부대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채 철원으로부터 야간 행군을 계속한 제25교육여단뿐이었다. 이 여단은 명령을 받은 지 3일 걸려 서울에 도착한 후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서울 동북쪽에 머물렀다.⁴⁶⁾ 탱크부대들은 기차로 이동 중에 손실을 입었으며, 포로심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인천-서울, 그리고 서울 시가전에 참가하게 된 북한군 전차부대는 제42땅크연대, 제43땅크연대 전부와 제44, 제45땅크연대의 일부, 그리고 후에 낙동강 전선으로부

43) Zhurnal, 1950년 9월 18일자;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231~232쪽.

44)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502~503쪽.

45) Zhurnal, 1950년 9월 18일자.

46)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232쪽.

터 북상해 온 제105땅크사단의 전차 약 20대였다.⁴⁷⁾

서울에서는 최광이 서울방어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시가전 준비를 했다. 한강철교 자체는 서울에 있던 철도대대와 공병대대가 방어를 담당했고, 서울 시가에는 수많은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방어공사에 9,000여 명의 서울 시민이 동원되었고, 그외는 10만 명의 서울 시민이 동원되어 시내에 700개 이상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⁴⁸⁾

그러나 북한군측에서 훈련이 불비한 잡다한 부대들을 조급하게 배치한 가운데 미 해병부대들은 9월 17일 김포비행장을 점령하고 행주 남쪽에서 한강 남안까지 도달했다. 많은 병사들이 인천에서 영등포로 향하는 길에서 미군의 포병화력과 간단없는 공중공격에 전의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 다행인 것은 미군의 진격이 매우 느렸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군 지휘관들이 속도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작전방식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보병들은 공격을 시행하기 이전에 항공기와 야포로 북한군 진지에 엄청난 양의 공중폭격과 야포 사격을 가한 후 서서히 전진했다. 미 해병 부대들은 해가 질 무렵이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장기(長技)였던 야간 공격과 침투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를 선정하고 참호를 판 다음 그 자리에서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방어를 수행하며 진지를 고수했다. 미군의 조심스러운 진격에 북한군은 시간을 얻어 9월 16일, 17일 밤을 이용하여 주요 도로에 약 500여 개의 대전차지뢰를 설치할 수 있었다.⁴⁹⁾ 이같은 북한군의 조치는 9월 18일 전투부터 효과를 나타냈다. 9월 18일 오전 8시 10분에 항공공격, 포격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시행한 후 보병과 전차를 앞세워 공격을 시작한 미 해병 제1연대는 공격작전 중 소사 동쪽 고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지대에 걸려 3대의 전차를 상실했다.

47) Montross and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325~326; Zhurnal, 1950년 9월 18일자. 애플만에 의하면 약 55~65대의 북한군 전차들이 인천, 서울, 수원에서 파괴되었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p.541.

48) *Voins v Korea 1950~1953*, p.125. 최광이 언제 서울방어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9월 24일에는 그 직에 있었음이 노획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최광의 명령, 「문화부사령관 동무 앞」(1950년 9월 24일),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서울: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1), 177쪽 참조.

49) *Voins v Korea 1950~1953*, p.123. 주영복 공병소좌는 두 개 공병소대를 이끌고 바로 이 지뢰매설 작업을 지휘한 후 UN군측에 자진 투항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493, 502~515쪽.

다음날 아침의 공격에서도 북한군 지뢰지대에 봉착해 2대의 전차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난 후, 미 해병은 공병의 수작업으로 지뢰지대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전차를 진출시켰고 이로 인해 작전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변했다.⁵⁰⁾ 하루 2~3km의 진격속도로 전진하는 미군의 늦은 진격속도를 이용하여 북한군은 9월 18일부터 해주, 서울 서측방(연희동, 마포 일대)과 영등포 서측 구릉에 상당히 강력한 진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⁵¹⁾

김일성이 낙동강 방어선 고수의 엄명을 내린 채 인천-서울로 지방의 예비연대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을 때 북경과 모스크바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군의 전력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김일성의 작전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무장이 변변치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지방 예비연대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차적으로 서울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내다보았다. 반드시 낙동강전선에서 주력사단들을 서울로 전용해야 인천-서울의 방어가 가능하고 주력부대가 포위망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9월 18일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부와 소련군사고문단을 통해 김일성에게 낙동강전선으로부터 '4개 사단'을 끌어올려 서울 주변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⁵²⁾ 9월 18일 김일성은 중국대사 예지량을 만난 자리에서 미군은 이미 서울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북한군이 새로 창설한 2개 연대들은 작전경험이 없고 전투력이 약하며, 증원부대는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는 10~15개의 사단 창설 지시를 내렸다는 말을 하며 인천상륙작전 후의 북한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었다.⁵³⁾ 로선으로부터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주은래는 9월 20일 주 평양 중국대사 예지량에게 전문을 보내, 김일성을 만나 적들이 서울을

50) Montross and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209~21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p. 512;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232쪽.

51)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383쪽.

52) 스탈린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스탈린의 소련 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서 형태로 평양의 슈티코프 대사에게 보낸 9월 27일자 전문과 스탈린이 모택동·주은래에게 보낸 1950년 10월 1일자 전문에 나타나 있다.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Matveyev(Army General M. V. Zakharov) and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 F. Shtykov, approved 27 September 1950 by Soviet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 translated by Alexandre Y.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9~11; 「스탈린이 모택동과 주은래에게」(1950년 10월 1일), Torkunov, *Zagadochinaia voina*, pp.113~114.

53)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제1권, 185쪽.

점령하면 북한군의 퇴로가 단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낙동강전선의 주력부대를 후퇴시켜 적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예지량은 이 전문을 21일 김일성에게 전달했다.⁵⁴⁾ 소련 외무성도 중국측의 그러한 견해가 옳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전문을 북경에 보냈다.⁵⁵⁾

김일성이 9월 18일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낙동강 전선의 일부 부대들을 북상시키라고 한 것은 틀림없이 그날 스탈린으로부터 ‘4개 사단’을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일 것이다. 9월 18일자 소련군 총참모부 전쟁일지는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군 지도부가 “남쪽[낙동강전선]으로부터 제1, 제9보병사단과 제17기계화사단을 불러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김일성은 이와는 달리 매우 모호한 명령을 내렸고, 작전일지에 쓰인 3개 사단을 북상시킨다는 결정은 그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김일성이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내린 명령은 “현 전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많은 병력을 수원으로 전용하라”는 것이었다. 전선사령관 김책 대장은 그 날 전차를 대부분 상실한 제105땅크사단의 주력(보유전차 약 20대)과 제9사단 제87연대를 경인지역으로 돌릴 것을 명령했다.⁵⁶⁾ 이 두 개의 부대는 김천 지역에 전선사령부의 예비로 있었으니 김책이 쉽게 서울로 올려 보낼 수 있는 병력이었다. 미군의 반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몇 개 보병사단을 북상시킨다는 것은 그로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병력이 얼마되지 않고 김천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2개 부대에게만 서울로 북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북한의 공간 전쟁사는 전선사령부가 “김천지역에 예비로 있던 땅크련합부대[제105땅크사단-필자]와 낙동강 좌안진지에서 방어하던 1개의 땅크련합부대[제17땅크여단-필자]를 신속히 대전지역으로 기동시켜 전선예비대로 장악하였으며 전선서부로부터 1개의 련합부대[제9사단-필자]를 새로 김천지역에 기동시켜 전선서부의 낙동강계선에서 방어하는 군집단의 예비대로 장악하게 하였다.”고 전선사령부의 조치를 기술하고 있

54) 위의 책, 185~186쪽.

55)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 542~543쪽.

56)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5: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서울: 명성출판사, 1986), 102쪽. 주영복은 회고록에 김일성의 명령이 “제1군단 산하 주력부대 일부를 긴급히 서울·인천 지구에 파견하고 잔여 주력부대는 현 지점을 사수케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쓰고 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59쪽.

다.⁵⁷⁾ 그러나 주영복은 포로수용소에서 그가 접촉했던 동료 북한군 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김책 대장이 제105땅크사단과 제9사단 제87연대에게만 서울로의 북상명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⁵⁸⁾ 실제로 나중에 수원과 영등포에 도착한 낙동강 전선의 부대는 제105땅크사단과 제9사단 제87연대뿐이었다. 두 부대는 인원으로 보면 불과 3,000~4,000명 정도였고 탱크의 숫자는 불과 20대뿐이었다.⁵⁹⁾

이리하여 ‘4개 사단’을 급히 낙동강전선으로부터 서울 지역으로 북상시키라는 지시는 스탈린과 소련군 총참모부의 의도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 스탈린이 이 지시를 내릴 때는 최소한 약 3만 명의 병력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9월 18일에 4개 사단에서 3개 사단으로 북상시킬 병력의 규모를 축소한 다음,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매우 모호하게 ‘가급적 많은 병력’을 북상시키라고만 하였다. 김책은 김책대로 전선의 유지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대들만 북상시켰다. 자세한 상황은 불분명하지만 제9사단을 지휘했던 제1군집단사령관(1950년 9월 8일 이후 전선사령부 참모장) 김웅이 숙청당한 후 작성된 북한 공간사는 김웅이 부대를 북상시키라는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는데⁶⁰⁾, 김책이 제9사단의 북상 의견을 말했을 때 김웅이 병력부족을 호소했고 그리하여 제9사단 전체를 북상시키는 대신 그 중의 1개 연대만을 북상하기로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⁶¹⁾ 결국 모든 수준에서 상급의 결

57) 허종호 외, 『조국해방전쟁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44쪽.

58)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502쪽.

59) 제1군단 공병군관인 백종운 중위는 9월 27일 청주에 북상해 있던 제105땅크사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날 현재 제105땅크사단은 탱크 20대와 1개 보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군단 공병군관 백종운 중위 포로진술. FEC, ADVATIS-1174 (17 Oct 50). 제9사단 제87연대(제3연대)의 인원수는 약 2,000명이었다. Montross and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325.

60) 김웅은 1957년에 숙청당했다. 그가 숙청된 후에 출판된 북한 공간사는 이 시기의 작전에 대해 “전선 서부의 인민군 부대들도 정면과 후방 익측으로 위협을 당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완강한 방어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선 서부 지역의 아군 부대의 책임적 지위에 잠입한 김웅을 비롯한 반혁명 반당 종파 분자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방침의 실현을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128쪽. 이것은 아마도 제9사단의 북상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인다.

61) 주영복은 그의 포로수용소 내의 동료군관들로부터 김웅 중장이 욕을 하며 김일성의 명령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했다고 그의 회고록에 쓰고 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59쪽. 김웅의 당시 직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1군단장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

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모호한 명령 전달로 인해, 적시에 낙동강전선으로부터 전투력이 있는 사단들을 서울 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울 방어를 강화하며 이의 엄호 하에서 낙동강전선의 주력 사단들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사라졌다.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전쟁의 대국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입각해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했던 최고사령관이 져야 할 문제였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9월 21일, 23일, 25일 잠시 동안을 제외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낙동강 전선의 전선사령부, 군집단사령부와 최고사령부간의 통신 연락이 단절된 것이었다. 김일성의 최고사령부는 서울전선에서의 전황은 보고 받을 수 있었지만 낙동강전선을 통제하고 있었던 김책의 전선사령부 전방지휘소(김천)와는 교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다만 소련군은 북한군 무선통신을 감청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⁶²⁾

낙동강전선에서 김책은 미 제8군의 전면적인 반격작전에 맞서 예하부대에게 완강한 방어선 유지를 강조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9월 18일 제2군집단(군단)에게 왜관 지역을 사수할 것과 현 전선을 유지하도록 엄명하는 한편, 제1군집단(군단)에 대해 우선 가장 남쪽에 있는 부대부터 회전하듯이 대전(금강선)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전선을 포항-왜관-금강선으로 일직선을 만든 뒤 서울의 방어 부대와 연결하고자 했다.⁶³⁾ 김책은 구체적으로 제1군집단(군단)에게 예하의 제6, 제7사단을 우선 철수시킬 것과, 제9, 제4, 제2사단은 예하부대들을 거창을 향해 20일 밤에 이동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부대들은 이미 18~19일 낙동강 동안 진지를 포기하고 낙동강 서안으로 이동했다. 9월 19일 국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받아 왜관 동북쪽의 가산을 방어하고 있던 제13사단과 제1사단이 붕괴됨에 따라 제1군집단과 제2군집단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한편, 미 제1군단의 주공부대

제로는 9월 8일 강진 폭사 이후 김웅은 전선사령부 총참모장이었고 제1군단장은 이전까지 제4사단장이었던 리권무, 제1군단참모장은 제3사단 참모장이었던 장평산이 승진 임명되었다. 제1군단 소속의 많은 군관들이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다. 백중윤 중위(제1군단 소속 공병군관), 안찬호 소위(제1군단 사령부 연락군관), 박규일 소위(제1군단 후방사령부 연락장교), 김문길 소위(제1군단 통신군관)의 포로진술 참조. FEC, ADVATIS-1174, 1084, 1028, 1029.

62) Zhurnal, 1950년 9월 20-25일자.

63)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180쪽;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 제5권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 103쪽.

인 제1기병사단이 왜관을 점령하고 그 북쪽에서 국군 제1사단이 돌파구를 확장하자 북한군 부대들은 급속히 무너졌다.

사실상 북한군 사단들은 아래로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 부하였던 최용진이 지휘하던 제13사단에서는 사단장의 무모한 지휘에 대한 항명 사건과 고급 군관들의 UN군 투항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미 8월 29일에는 포병연대장 정봉욱 중좌가 UN군측에 귀순해버렸다. 9월 19일과 20일 사이에는 사단참모장이었던 리학구 중좌가 부하를 돌보지 않는 최용진 사단장의 무리한 명령에 반발하여 권총으로 사단장을 쏘고 다음날 UN측에 투항했다. 최용진은 부상당했으나 생명은 건졌다. 그 후로도 제13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이 계속 투항했다.⁶⁴⁾ 그러나 제13사단에서만 항명과 명령불복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제2군집단사령관 무정은 권총을 빼들고 진지를 고수하라고 예하 지휘관들에게 고함쳤지만 연대장들이 먼저 진지를 포기하고 철수해버렸다.⁶⁵⁾ 유사한 사건들이 많은 부대들에서 일어났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낙동강전선의 전사들에게 미군의 인천상륙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엄명하였으나, 이미 9월 18일 경에는 그 소식이 소문이 되어 전 사단들에 확산되어 부대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9월 21일 경에는 많은 부대들이 뿔뿔이 분산되어 국군과 미군의 추격에 쫓기며 소그룹을 이루어 산길을 통해 철수했다.

9월 21일에 대구 동북 전선 지역이 돌파될 위기에 직면하자 제2군집단사령관은 그의 예하 제13, 제1, 제8사단에게 군위에 대한 반격을 명했지만 이미 이 시점에는 명령이 예하부대에게 먹혀들어가지 않았고 국군 제2군단의 공격을 받아 전선이 붕괴되었다.⁶⁶⁾ 이날 김책은 제2군집단(군단)에게 “군 병력을 낙동강 북쪽 강변으로 후퇴시켜, 함창, 예천, 안동, 공정동, 영덕 선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⁶⁷⁾, 그것은 이미 조직적으로는 실행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전선사령부는 9월 22일 제1군집단(군단)에게 낙동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대전

64) 유독 제13사단에서 고급군관의 투항이 많았던 것은 제13사단장 최용진의 무단적인 지휘 때문이었음에 틀림없다. 다음은 제13사단의 투항 군관들이다. 자주포대대장(9월 24일), 군의부장(9월 27일), 제21연대장(10월 1일), 제19연대장과 169명의 부하들(10월 3일).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 5: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 141쪽.

65)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62쪽.

66) *Voina v Koree 1950~1953*, p.127.

67) 『라주바에프 보고서』 제1권, 394쪽.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⁶⁸⁾ 이 무렵에 제2군집단사령관은 탱크부대인 제17땅크여단을 먼저 영주로 철수시킨 후 퇴로를 엄호하게 하고 주력의 철수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공세 초에 보유했던 44대의 전차 중 대부분의 전차를 잃고 불과 전차 6대와 자주포 2대, 1~2일분의 유류를 갖고 있던 제17기계화사단장 정철우 소장은 제2군집단사령관으로부터 영주를 장악하여 제2군집단의 후퇴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9월 26일 영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6시에는 이미 국군 제8사단이 풍기를 점령하여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아있는 전차와 자주포를 스스로 파괴한 뒤 9월 26일 지휘부만 태백산맥을 넘어 단양으로 철수했다.⁶⁹⁾ 제2군단 예하 사단들은 중장비를 모두 파괴하거나 포기하고 소그룹으로 나뉘어 산길을 골라 국군 추격부대의 추격을 따돌리며 제천-원주 방향으로 철수해야 했다. 미 제10군단이 무서운 기세로 서울로 진격해오자 소련과 중국에서는 서울 점령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온갖 방책을 고려하고 있었다. 육군장관 바실리에프스키 원수는 9월 21일 스탈린에게 약 40대의 Yak-9 전투기들로 구성된 소련공군 1개 연대를 평양 상공 엄호를 위해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틀 후 그는 스탈린에게 항공기 기종을 La-9 40대로 바꾸어 10월 1~2일까지는 이 항공연대가 평양에 도착하도록 하겠지만, 소련조종사들이 러시아어로 교신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소련 공군의 참전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⁷⁰⁾ 하지만 이 계획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스탈린이 그로 인해 미국과의 대전쟁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⁷¹⁾

68) 위의 책, 391쪽.

69)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2권, 34~35쪽. 이 책에서는 제17기계화사단(제17땅크여단)의 영주로의 이동이 9월 22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마지막까지 풍기에 있다가 포로가 된 17땅크여단의 강희구 중위의 포로진술에 의하면 여단이 영주에 도착한 것은 9월 26일이었고, 사단장은 그의 측근들이 참모장 정강대좌에게 지휘를 맡기고 풍기를 떠났다. 제17땅크여단 강희구 중위 포로진술. FEC, ADVATIS-1142 (13 Oct 50). 작전상황으로 보아 강희구 중위의 진술이 정확하다.

70)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7, 79~80, 81~82쪽.

71) 러시아 항공연대의 북한 파견 계획은 이때 스탈린에 의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대신에 MiG-15기로 구성되어 이해 7~8월에 연해주에서 심양으로 옮겨간 제151 전투비행사단으로 하여금 11월 1일부터 압록강 상공을 엄호하는 작전을 펴도록 했다. 한편 소련 공군대좌 페트라초프는 조선인민군 공군의 군사고문 자격으로 단둥비행장에 있던 북한군 공군의 Yak-9 24대와 새로 양성된 비행사 26명을 지휘해 10월 말부터 압록강

주은래는 9월 20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 예지량을 통해 북한에 다시 전략 조언을 했다. 그는 북한이 신평 사단들을 편성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며 속결전을 버리고 장기지구전으로 나가야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했다. 동시에 그는 주력을 신속히 철수시켜 보존함으로써 반격부대를 만들고 반격을 할 때는 우세한 병력으로 적은 규모의 적을 섬멸전으로 타격하여 작은 승리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작전방법에 대해 한 수 가르쳤다. 요컨대 그의 전략 조언은 주력을 신속히 철수시켜 주력을 보존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⁷²⁾

결국 김일성은 9월 23일 제1군집단(제1군단)은 공격과 퇴각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축차적으로 금강 이북 충주-서울 방어선과 음성-조치원선 방어선을 구축하고, 제2군집단(제2군단)은 소백산맥 지역까지 철수시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신속히 보충 부대를 집결시켜 적을 괴멸시킬 기회를 노린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낙동강 방어선의 전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명령이 전선사령부에 실제로 수신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⁷³⁾ 9월 23일 이후 다시 전선사령부와의 무전 교신이 단절되어 평양에서는 그 후 25일 잠시동안을 제외하고 29일까지 전선사령부와의 교신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9월 23일까지도 서울

철교를 엄호하는 작전에 가담했다. 전현수, “소련 공군의 한국전 참전”,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38~639, 640~642쪽.

72) 中華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56~57쪽. 주은래의 이 전략 조언은 9월 21일에 김일성에게 전달되었다.

7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제1권, 182쪽;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제5권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 104~105쪽. 북한 공간사는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이러한 취지의 김일성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시어 낙동강전선의 연합부대들로 하여금 방어 전선과 지대를 축소하더라도 주력부대를 보존하여 적들이 우리의 전선부대들을 각개격파하지 못하도록 부대 및 연합부대의 협동을 강화하면서 몇 개 사단씩 집단적으로 방어를 구성하게 하시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지형과 자연조건을 리용할 수 있는 방어진지에 전선을 이동하여 기동하기 좋은 위치에서 방어하다가 적의 약점을 찾아 적을 분할섬멸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허종호 외, 『조국해방전쟁사 2』, 48쪽. 그러나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한 중요한 명령을 대부분 기록했던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일지에는 9월 23일의 이 명령 하달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명령 하달 여부가 문제시된다. 다른 소련 저작들에도 이날 명령 하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쩌면 이 명령은 작성되긴 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9월 25일에 제1군집단(군단)은 서울, 충주, 음성 등이 아닌 ‘대전’으로의 철수를 명령받고 있기 때문이다. Zhurnal, 1950년 9월 25일자.

이 점령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고, UN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내다볼 수 없었다. 그가 9월 23일 평양에 모란봉 지하극장을 새로 설계하는 문제를 놓고 설계책임자들에게 “극장천정을 궁륭식으로 하고 벽과 바닥을 모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극장이 웅장하고 무게가 있으면서도 경쾌한 감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사를 앞당겨 다음해 5·1절까지 완공하라고 한 것⁷⁴⁾은 전선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무심했었는가를 대변해준다.

그 동안 서울에서 북한군 부대들은 철저한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9월 20~21일간의 격렬한 전투 후에 영등포가 함락되었고, 9월 19일에 행주를 도하한 미 제5해병연대가 서울시가의 서측방으로 진격해왔다. 최용건의 서해안사령부는 후방에서 도착한 모든 부대를 동원하여 연희동 주변의 과거 일본군 훈련장에 참호를 깊게 파고 미 해병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곳에 투입된 북한군 제25교육여단은 미 5해병연대와 국군 제1해병연대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며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서측방을 방어했다. 그러나 9월 21일 미 해병제1연대가 영등포와 노량진을 점령한 이후여서 서울과 남쪽전선과의 연결은 끊겼다. 미 제1해병사단을 후속해 들어온 제7사단은 9월 20일부터 안양을 공격함으로써 서울과 남쪽전선의 북한군은 더욱 멀리 분리되었다. 서울 서측방에 대한 방어는 매우 완강했지만, 서울 방어부대들은 서울 남측을 방어할 부대가 부족했다. 미 제10군단장 아몬드는 이를 노려 9월 25일 미 제7사단 병력들과 국군 제17연대를 한남동과 뚝섬으로 도하케 함으로써 북한군의 방어 배치가 취약했던 남산과 응봉, 그리고 서울 동북의 능선을 점령하고 서울 시가로 포위망을 좁혔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군은 시가지의 바리케이드와 건물을 이용하여 마포에서부터 서울 중심부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며 서울 동북쪽으로 서서히 퇴각했다. 전투는 9월 28일까지도 계속되었다.

전선사령부와 교신이 끊겨 있던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9월 25일 전선사령부와 잠시 동안 무선통신이 개통됨으로써 낙동강 사단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9월 25일에 김일성은 제1군집단사령관에게 ‘대전 방향’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날 19:00에는 제2군집단사령관에게 김천-상주-함창-

74) 김일성, 「모란봉지하극장을 훌륭히 건설하자」(모란봉지하극장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일군 및 평안남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50년 9월 23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19~321쪽.

예천-안동-영덕 선에서 방어로 전환하여 적의 진출을 이 선에서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⁷⁵⁾ 그것은 대전-낙동강상류 선에서 전선을 일직선으로 정리하겠다는 작전의도가 표명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제1기병사단은 이미 김천을 점령하고, 1개 보병연대(제7기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제77포병대대), 1개 전차중대로 구성된 제777연대전투단은 상주, 함창을 통과한 뒤 급속히 질주하여, 그 선두부대는 이미 천안에 도달해 있었다.⁷⁶⁾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은 전선 상황에 어두운 상태에서 도상에서 내려진 때늦은 것이 되었다.

이날의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은 두 가지 점을 말해 준다. 첫 번째는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미 제10군단의 서울 포위망이 형성된 이날까지도 서울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이전에 전선사령부에게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북상시키라’고 한 것은 모스크바에서 내린 ‘4개 사단 북상’ 지시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했을 뿐, 서울 이남 대전 부근의 일정 지역으로 철수한 뒤 전선을 안정시켜 차후에 다시 ‘반격’을 해 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달되지 않았지만 최고사령부에서 논의된 9월 23일자 명령 초안의 내용은 그러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의도를 읽게 해준다. 그러나 이미 영등포와 노량진이 9월 21일 UN군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서울-김천간의 북한군 주보급로가 차단되고 유류 및 포탄 등의 물자 수송과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슨 수단으로 반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그 사령관 김일성은 서울의 전선 상황, 북한군 군수 문제를 도외시킨 채 꿈을 쫓는 탁상공론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IV. 북한 방어에 대한 소련의 직접 개입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부를 통해 내려 보낸 지시에 북한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미 제10군단이 서울을 점령하도록 작전지도(作戰指導)를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련군 참모차장 자하로프[가명 마트베예프] 장군을 평양에 특사로 내보냈다. 9월 25일 평양에 도착한 자하로프에게 비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전

75) Zhurnal, 1950년 9월 25일자; *Voina v Koree 1950~1953*, p.129; Torkunov, *Zagadochnaia voina*, p.86.

7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456~459쪽.

쟁 지도는 한심한 것이었다. 그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소련군사고문단장과 함께 북한군의 실정을 파악한 바로는 낙동강전선과는 유무선이 불통이어서 전선 상황이 최고사령부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무전차를 구동하기 위한 유류도 보장되지 못했다. 통신기재는 미숙한 통신병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었고 서울은 적에 의해 포위당해 있는 상태였다. 낙동강전선에서 적 부대는 이미 상주와 안동을 점령한 상태였고, 그 선두의 탱크 부대가 충주로 향하고 있어 제1군집단이 포위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전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9월 26일 슈티코프와 함께 김일성과 박헌영과 면담했을 때 김일성이 전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일성은 전선으로부터 교신이 끊겨 상황을 알 수 없다고만 할 뿐 전선에 연락군관이라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었다. 자하로프 장군은 김일성에게 즉시 연락 군관을 내보내 전방 상황을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화에서 김일성은 차후 대책에 대해 9월 17일에 그가 구상했던 안, 즉 남한에서 징집한 청년들로 9개 사단을 창설하고, 북한에서 징집한 청년들로 6개 사단을 창설하여 장기전을 치르고자 하나 전선상황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9개 사단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의 무선교신은 되지만 최용건이 보고를 하지 않아 서울방어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자하로프는 김일성에게 남한 청년들을 동원해 9개 사단을 편성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으니 기각하고, 북한에서 6개 사단을 편성하는 안을 실행하되 이 사단들에 대한 무장과 훈련을 강화할 것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김일성이 최고사령관과 민족보위상을 겸할 것과 최고사령부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된 참모부를 갖게 해야 한다는 안에 찬동했다.⁷⁷⁾ 자하로프는 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고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의결로써 추가적인 6개 사단 창설을 위한 장비를 10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결정했다.⁷⁸⁾

아마도 UN군의 서울 점령 소식에 의해 충격을 받았는지 슈티코프 대사는 9월

77) 「북조선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대표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 전선의 상황에 대하여, 평양에서, No. 1298, 1950년 9월 27일 12시 35분」,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148~149쪽; Torkunov, *Zagadochnaia voina*, pp.85~86.

78) Torkunov, *ibid.*, p.95.

27일 김일성을 만나 앞으로 평양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⁹⁾ 9월 27일에는 또한 남쪽에서 오산으로 북상한 미군 부대와 서울에서 남하한 미군 부대가 제1군집단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었다.⁸⁰⁾ 소련측은 아직 미군이 서울 점령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판단할 만한 첩보는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9월 26일 UN에서 영국의 주도로 제출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결의안’은 매우 완곡하게나마 UN군이 북한 지역까지 통일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전 한국의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방법이 취해질 것이다.”⁸¹⁾ 슈티코프는 서울방어 작전에서 예비부대들이 소모된 상태이고 만약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한다면 이를 저지할만한 부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9월 28일 모스크바에 보낸 보고서에서 “미군사령부가 인민군 부대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평양으로 진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평양방어력 강화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예비 병력은 없는 상태다”라고 전하면서, “현 상태로는 모든 상황이 미군을 38도선에서 저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계획대로 진격이 이루어진다면 필시 평양에 공격력이 집중될 것이다. 평양 포기 문제를 김일성과 논의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고 썼다.⁸²⁾

이즈음에 김일성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 군인들은 희망을 잃고 있었다. 김일성도 미군이 38선을 돌파해 북진해 올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슈티코프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슈티코프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8도선 방어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⁸³⁾ 김일성도 북한에서 예비부대를 신편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부대들의 군인들 상당수는 소총도 없이 목총으로 훈련받고 있는 부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정규군을 지휘해 미군을 막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라고

79) 이 날짜가 7월 27일이었는지, 7월 28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 대화 내용은 9월 28일에 모스크바에 보고되었다.

80) Zhurnal, 1950년 9월 27일자.

81)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35~336쪽;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1987), p.328.

82)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제2권, 74쪽.

83) Torkunov, *Zagadochnaia voina*, p.90.

판단하고 있었지만, 저항의지만은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9월 27일 도당위원장 협의회를 소집해, 지금의 후퇴는 ‘일시적 후퇴’일 뿐이라고 역설하며 각도당위원장들에게 각 지역별로 식량과 물자를 소개하고 끝까지 유격투쟁을 펼쳐 항전할 것을 촉구했다.⁸⁴⁾ 미래의 북한 운명에 대해 희망을 잃은 것은 김일성만이 아니었다. 슈티코프 역시 9월 말에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9월 30일 모스크바에 미군이 북진하기 전에 소련 기술고문들의 본국 철수를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⁸⁵⁾ 그가 사태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기한 문제였다. 슈티코프는 9월 28일과 29일 김일성, 박헌영과의 대답에서 미군의 북진 가능성에 대해 묻는 김일성에게 최악의 경우에 대해 대비해야 하고 38선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직접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그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그것은 북한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다.⁸⁶⁾ 또한 그는 전방의 악화된 상황 수습을 위한 방안에 대한 김일성의 조언 요청에 대해서도 ‘부대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거기에는 김일성의 허풍과 낮은 군사지도자적 자질에 대한 슈티코프의 실망도 한몫 했다. 그는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다.

예전에 그는 아무런 문제없이 군을 조직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내에는 군기문란과 명령불복종 사례가 만연하여 적은 아군 제1군집단을 분단시키고 문경과 제천을 돌파함으로써 제2군집단마저도 분단시키고 있다.⁸⁷⁾

84) 김일성, 「일시적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9월 27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22~331쪽.

85)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소련 전문가들과 소련 기관 직원들의 소환 절차에 대한 결정 초안, No. 182-Sh, 1950년 9월 30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57~158쪽. 이에 대해 모스크바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다가 10월 6일에 가서야 이를 허용했다. 같은 책, 158~160쪽.

86) 「슈티코프가 외무성 그로미코 동지에게, 상부 보고를 위해」(1950년 9월 2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3)』, 97~98쪽. 슈티코프가 북한지도자들이 소련군의 직접 참전 문제를 꺼낼 때 이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보인 것은 전쟁 전인 4월의 모스크바 비밀회담에서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소련군의 직접 참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9월말의 시점에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소련과 중국에 대해 파병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9월 29일과 10월 1일에 각각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병력을 직접 파병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썼다.⁸⁸⁾ 스탈린은 소련군의 직접 참전으로 인한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모택동에게 최소한 5~6개 사단의 병력 파견을 통해 북한 붕괴를 막도록 촉구했다. 중국지도부 내부에서의 참전론과 전쟁불가론의 대립, 참전론을 주장한 모택동의 의지 관철 노력, 중국의 최초 참전의사 변경, 북한에 파견하는 중국군의 무기지원 및 소련공군의 항공엄호 문제를 놓고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북경의 중국지도자들 내부에서, 그리고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벌어진 모택동, 주은래와 스탈린 사이에서 참전조건을 두고 벌어진 줄다리기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⁸⁹⁾ 여기서 재차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군의 파병만이 한국문제의 해결에 있어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탈린은 중국군이 북한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군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눈앞의 상황에 낙담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슈티코프 대사와 자하로프 특사는 북한지도자들에 대해 실망한 채 적극적인 사태 수습계획도 세우지 않고 북한문제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10월 1일 슈티코프와 자하로프에게 그러한 방관자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엄중히 꾸짖는 전문을 보내 북한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는 적어도 38선 이북의 한반도만은 확보해야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슈티코프, 자하로프와 북한 지도부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이 전문은 길지만 전체를 인용할만한 가치

87) Torkunov, *Zagadochnaia voina*, p.89.

88) 외무부 역, 「한국전쟁 문서요약」 부록 「김일성-스탈린-모택동간의 전문 및 서신」.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보낸 10월 1일자 서신은 10월 3일에 전달되었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223~225쪽.

89) 중국참전을 둘러싼 중국내의 참전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대립, 참전 조건을 둘러싼 중소간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의해 그 과정이 상세히 밝혀졌다. Sergei N. Goncharov et als.,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Ch. 6;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Ch. 6;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제10장;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파병 결정과정과 개입동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80~261쪽.

가 있다.⁹⁰⁾

평양

슈티코프, 마트베예프 동지에게 :

당신들이 보내준 9.30일자, 10.1일자 전보는 잘 받았소. 전보에 의하면 김일성 동지와 기타 조선의 영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신들이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같은데, 본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소. 작금의 곤란한 상황하에서 조선동지들의 크고 작은 건의 및 도움 요청은 당연한 것인데, 슈티코프 동지의 무응답은 조선영도자에게 커다란 동요 및 불안을 초래할 것이요. 마트베예프 동지를 조선에 파견한 것은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를 파견하지 않아도 조선에 관한 상황은 파악할 수 있소. 지금껏 그는 조선 군사상황에 대한 구체적인고도 상세한 분석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세를 고려한 어떠한 건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어렵소. 조선 지도자에 대한 마트베예프 동지의 도움이 미미하기 때문에, 조선 지도자는 지금까지도 38선과 38선 이북의 공화국 방어계획은 물론 남조선 철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소.

동지들은 조선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시요.

즉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다음 사항을 전하시요.

첫째, 적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 즉 적의 북조선 점령 기도까지 고려해야 하요. 따라서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지체없이 동원하고, 적이 38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38선 이북지역에서의 전투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요.

조선 공화국의 방어편성 역량 및 잠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되요. 조선 북쪽지역의 동원 잠재력과 자원은 충분하요. 작금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최대한기간 내에 현재 보유중인 부대의 전투력 강화와 신편부대를 토대로 하여 막강한 무장역량 건설 임무를 완수해야 하요. 이러한 부대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장비는 우리가 제공할 것이요.

본인은 북조선이 38선과 38선 이북지역에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요. 조선정부는 충분한 역량이 있소. 단지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조

90) Ciphred Telegram #75352 "Telegram from Stalin to Soviet Officials in Pyongyang, 1 October 1950", *CWHP Bulletin*, Issue 14/15 (Winter 2003-Spring 2004), pp.374~375. 중국어 번역문은, 「핀시(스탈린)가 슈티코프와 마트베예프(자하로프)에게」, 『朝鮮戰爭: 俄國檔案館의解密文件』 (중책), 573~574쪽.

직하고,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여 방어해야 하오. 전력을 다해 신속히 부대와 병단을 편성하시오. 이러한 부대의 무기와 장비는 이미 조선으로 운송 중에 있소. 이와 동시에 부대를 남쪽에서 철수시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오. 이러한 고려는 남쪽에서 전선이 미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으로의 철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오. 이는 강력히 추진해야 하오. 왜냐하면 미국은 아마도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아군 부대의 철수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오.

둘째, 남쪽의 적 후방지역에서는 유격활동을 벌여야 하오. 이러한 활동은 현지 주민으로 유격대를 편성할 수도 있고, 남쪽에 남아있는(북쪽으로 철수할 수 없는) 부대를 이용할 수도 있소. 유격대원의 임무는 교통망 파괴, 통신시설 및 선로 파괴, 적 습격 등이며, 기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적 후방을 교란시켜야 하오.

셋째, 작금의 형세는 강력한 영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무 즉, 완강한 고수방어 임무를 고려하여 지도부를 개편해야 하오. 이를 위해 우선 지도부 중간계층의 동요를 제거하고, 지도자 동지의 직무와 책임을 엄격하고 명확히 확정하며, 모든 사람들은 각각 명확한 임무가 있어야 하오. 또한 국방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오. 즉각 무자비한 반동세력 제거 조치를 취하고 후방질서를 유지해야만 하오. 적이 투입시킨 파괴분자와 대응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요원으로 편성된 지방의 적 격멸 자위대를 편성해야 하오. 정부는 해당 소재지별로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런 정부요원으로 편성된 강력한 돌격대를 보유해야 하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주요 항구 및 예상되는 적 상륙부대 상륙지역에 기뢰를 설치하시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소.

넷째, 김일성 동지가 핀시(Finsi)[스탈린-필자] 동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장역량 원조문제를 언급하였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원방식은 지원군을 파병하는 것이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동지들과 우선 협상을 진행해야 하오. 당신들은 아마 조만간에 김일성 동지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을 받게 될 것이오.

핀시(Finsi)

1950년 10월 1일

슈티코프, 자하로프, 김일성, 박헌영은 즉시 스탈린이 지적한 문제들의 시행에 들어갔다. 소련군사고문단은 즉각 38선에 부대를 재배치할 계획을 수립했고,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10월 1일 서울 북방에 있던 전군에게 38선 북방진지로 후퇴해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날 최고사령부는 제2군집단사령부에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선은 동서로 양분하여 서부는 서해 안방어사령부 사령관 최용건이 방어를 책임지고, 동부는 38선을 넘어 철원으로 후퇴해 온 전선사령관 김책이 방어를 전담하게 했다. 해군에서는 즉시 동서해안에 기뢰를 매설하는 작업에 들어갔다.⁹¹⁾ 소련군사고문단은 이때부터 평양 방어계획에 착수했다. 신편 사단들의 편성이 가속화되었다. 군대의 패배심리와 동요를 막기 위해 군대에 대해 직접 당이 개입하도록 했다. 10월 2일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⁹²⁾고 말한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인 김일(金一)이 철직되고 박헌영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어⁹³⁾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훈련국은 10월 7일 총정치국으로 개편되었고, 10월 14일에는 전 군부대에 문화부 대신 정치부를 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⁹⁴⁾ 뒤이어 10월 2일 모스크바는 38선 이남에 남아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을 북쪽으로 철수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대들에게는 중장비를 파기하고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을 산길을 통해 북상시키라는 전문을 평양에 보냈다. 동시에 남한에는 부대를 남겨두어 한·미군의 후방에 대한 유격전을 시행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⁹⁵⁾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 38선과 북한 전역에 대한 방어계획이 수립되고 필요한 부대의 재배치 명령이 내려가기는 하였지만 북한군의 전투능력은 단시일 내에 개선될 수 없었다. 10월 10일 현재 38도선 북방의 북한군은 숫자상으로는 93,498명을 헤아리고 있었으나⁹⁶⁾ 그 대부분은 전투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신병들이었다.

91)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136쪽; *Voina v Koree 1950~1953*, p.131.

92) 고봉기는 이말이 김일이 강계에 후퇴해 와 허가이에게 한 말이며, 허가이가 이를 김일성에게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아마도 10월 초일 것이다. 그는 이 시기에 소련고문단에도 소련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대놓고 불평했다. 김일은 전반적으로 ‘문화사업’의 실패한 것과 소련고문단에 대한 불평이 겹쳐 철직되었을 것이다. 편자 미상,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천마, 1989), 44쪽. 박길룡은 다만 정치·교양 사업을 잘못된 죄로 김일이 철직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길룡·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 (서울: 중앙일보사, 1994), 42쪽.

93) *Voina v Koree 1950~1953*, p.305. 이 책에서는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다만 총정치국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다고 쓰고 있지만 그가 틀림없다.

94) V. A. Matsulenko, *Koreiskaia narodnaia armia* (Moskva: Voennoe Izdatel'stvo, 1959), p.58.

95) "Ciphered Telegram, Chan Fu (Stalin) to Matveyev(Zakharov), 2 October 1950", *CWIHP Bulletin*, Issue 6/7 (Winter 1995), p.114.

96) *Voina v Koree 1950~1953*, p.137.

보유한 무기도 편제에 비해서 형편없이 부족했고, 지휘할 군관들도 부족한 상태였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38선으로 철수한 북한군은 38선에서는 세 방향의 주요 접근로에 방어 병력이 배치되었다; (1) 개성-금천 방면: 제19사단, 제27교육여단(사단으로 승격), (2) 철원 방면: 제25교육여단(사단으로 승격), 제26교육여단, 제31사단(철원), 제32사단(평강), 제33독립연대, 제18사단 잔여부대, (3) 춘천 방면: 제92예비연대(화천)와 제1, 제3, 제8, 제9, 제12, 제15사단의 패잔부대. 또한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신편 사단들이 편성되어 배치되었다; (1) 해주: 제43사단과 제41독립땅크연대, (2) 원산: 제42사단, 제45독립땅크연대, 제24해군육전연대, 제96예비연대, (3) 진남포: 제46사단, (4) 나남: 제41사단, (5) 청진: “청진여단”, (6) 신의주: 제47사단. 서해안에는 해주에서 남포까지의 해안에 제25해군육전여단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강릉에서는 국군 제3사단이 10월 1일 이미 38선을 돌파해 급속히 북상해왔다. 이 접근로에는 제24해군육전여단의 1개 대대가 국군의 진격을 차단할 임무를 맡았다.⁹⁷⁾

평양 방어를 위해서는 3선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평양 시가지, 그리고 그 외곽 5~6Km 반경, 그리고 그 외곽 20Km 반경에 고지대와 도로 접근로를 연결하는 3중의 원형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평양 방어를 담당할 부대는 민족보위성 경비연대, 내무성 경비연대, 각종 군관학교 군관후보생들밖에 없었다.⁹⁸⁾ 평양 방어에 임했던 군관 포로들에게 의하면 평양에는 이 부대들을 묶어 ‘평양경위여단’(또는 ‘평양위수여단’)이 편성되었는데, 6개의 소총대대, 1개의 포병대대, 1개의 독립탱크중대, 6개의 박격포중대가 전체 전력이었다. 평양 외곽방어를 위해서 10월 8일에는 전차 20대와 자주포로 4개의 탱크중대, 2개의 자주포중대로 구성된 ‘평양방어땅크연대’를 편성해, 제1선의 흑교리와 제2선의 중화에 배치했다.⁹⁹⁾ 전체 병력은 1만 명

97) 부대의 배치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교차 대조했다. Zhurnal, 1950년 10월 1~15일자; *Voina v Koree 1950~1953*, pp.136~141; US Far East Command,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typescript, 1952), pp.52~83. 북한이 10월초에 새롭게 편성한 제41-43, 45-47사단 중 제45사단은 함흥에서 창설되어 의정부까지 남하해 전투를 수행했으나 지리멸렬한 상태로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단에 관한 정보는, 제45사단 제75연대 김유홍 중위 포로진술 FEC, ADVATIS FWD RPT #0177 (28 October 1950) 참조.

98) 『라주바예프 보고서』 제1권, 242쪽.

99) 평양경위여단 김경섭 소위 포로진술, EUSAK, 164-MISDI-1155 (22 October 1950); 평양방어땅크연대 김병준 총위 포로진술, EUSAK, 164-MISDI-1148 (22 October 1950). 투입된 전차 20대는 아마도 제105땅크사단 예하 부대로 평양에 남아 훈련을 담당하던 208땅크교육연대에 속했던 전차들이었을 것이다.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서울방어 당시에 비해서도 전력은 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전 전선에 대한 방어대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부대들은 한·미군의 38선 북진작전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붕괴되었다. 수많은 신평 사단들은 첫 전투에 진지를 포기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¹⁰⁰⁾ 동해안에서는 동해로부터의 미해군의 함포사격과 미 해군의 지원항공기의 막강한 화력지원을 받는 국군 제3사단, 수도사단의 진격을 막지 못하고 10월 10~12일에 원산을 점령당했다.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가장 중점을 두어 방어를 시행해보고자 한 곳은 금천과 그 남방의 산악지대였다. 평양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미 제1기병사단은 10월 8일부터 진격을 시작하여 금천 남방에 진출했을 때 대단히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곳에는 김창봉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19사단과 제27교육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금천 남쪽 고지대와 금천 시가에서 북한군 사단들은 1개 독립전차연대까지 투입하여 10월 14일까지 완강한 방어를 시행했지만 전차부대는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소유한 전차를 모두 상실하고, 보병들은 임진강 서쪽의 백천으로 우회하여 금천의 배후인 한포리 교량을 점령한 미 제7기병연대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포위되었다. 포위당한 부대들이 포로가 되거나 분산해서 흩어졌다. 10월 12일 원산 상실, 10월 14일 금천 상실 이후 북한군은 더 이상 평양을 방어할 유력한 부대를 찾을 수 없었다. 해주에 주둔한 오진우 소장의 제43사단은 10월 16일 사리원 방향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이보다 먼저 사리원을 선점한 미 제1기병사단과 해주, 재령의 양 방향으로 진출하는 미 제24사단 병력에 차단되어 대부분의 병력이 투항했다.¹⁰¹⁾

금천과 원산이 공격을 받고 있던 시점인 10월 10일 김일성은 대국민 방송연설을 통해 저항의지를 고취해보고자 하였다.¹⁰²⁾ 10월 11일 김일성은 스탈린이 1942년 7월 독일군의 공격에 맞서 전체 국민에게 저항을 촉구했던 연설을 연상하는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라는 주제의 방송연설을 했다. 북한군 장병들에게는

100) 이 당시 제30민청사단의 전투상황을 기술한 다음의 기록은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 장학봉,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416~424쪽.

1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pp.622~631; 제43사단 박창일 소좌 포로진술, FEC, ADVATIS FWD RPT #1042 (24 October 1950); 제43사단 손영관 상위 포로진술 EUSAK, 164-MISDI-1156; 제43사단 이억주 대위 포로진술 FEC, ADVATIS FWD RPT #0191(29 October 1950).

102)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제2권, 74쪽.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릴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고, 노동자에게는 무기 생산을, 농민에게는 식량 공급을, 적 후방의 빨치산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후방교란과 파괴를 주문했다. 또한 인민들에게 “후방에 있는 간첩분자 및 파괴분자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체포 소탕”하고, “각종 요언 유포자, 우울분자, 낙심분자, 도피분자, 비겁분자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¹⁰³⁾ 연설은 격정에 넘쳐 있었으나 효과는 없었다. 전선의 진지는 단 몇 차례의 포격에도 붕괴되고, 후방의 인민들은 UN군의 진격해오는 도로에 나가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1950년 10월 13일에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무렵 패배의 분위기가 이미 평양을 엄습하고 있었다. 평양에서는 상점, 식당 그리고 기타 판매점들은 일부 개인 가게들을 제외하고 문을 닫았다. 이미 3일전부터 피난민들이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각의 핵심 인원과 김일성, 박헌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강제로 후퇴해갔다. 일부 민주당과 청우당 ‘반동’들이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진입을 목표로 하여 비밀리에 파괴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당혹감과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관들은 소련고문관들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조라고 말하며 소련고문들의 권고를 무시했다. 김일(金一)조차 군사고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문들이나 그들의 조언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다”고 거칠게 말했다.¹⁰⁴⁾ 10월 14일과 15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군에 명령을 내려 후퇴하는 자에 대한 즉결처분과 독전대를 운영하여 방어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⁰⁵⁾ 그러나 후방으로 분산 후퇴하는 병력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¹⁰⁶⁾

김일성과 슈티코프는 10월 14일 금천이 함락된 다음날인 10월 15일 더 이상 평양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최고사령부를 덕천의 옥천역 부근 터널로 옮기기로 하였다. 김일성은 이날 소수의 최고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덕천으로 피신했다. 박헌영은 소련대사관을 따라 신의주로 떠났다.

103) 「1950년 10월 11일 방송하신 김일성장군의 연설」(1950년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21~23쪽.

104) TsAMO RF, Fond 5, Opis 918795, Delo 124, Ll. 124, 136~140.

105) NARA, RG 242, Shipping Advice 201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0070호」(1950년 10월 14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지령: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70호 집행을 위한 사업조직에 대하여」(1950년 10월 15일, 평양시).

106) Zhurnal, 1950년 10월 13일자.

북한의 저작들이 훗날 그의 행적을 미화한 것과는 달리 김일성이 최고사령부의 참모요원들을 이끌고 덕천으로 갔을 때 그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예하 부대를 지휘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가 덕천의 한 터널 안에 숨긴 한량의 객차에 머물렀던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군 부대와의 모든 통신은 끊겨 있었다.¹⁰⁷⁾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고 사령부를 옮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후에 5일 동안 김일성이 머무른 이 지역을 ‘옥천사적지’라고 명명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전도우에 붉은 화살표를 그려 가시며 적후에 2전선에서 싸우게 될 사단들과 연합부대들을 편성하시고 그의 활동구역과 투쟁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제2전선사령관과 정치위원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을 전선으로 파견하시였다”고 하며 활발한 지휘 활동을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¹⁰⁸⁾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 김일성과 동행했던 소련대사 슈티코프에 의하면 그는 신변의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안색은 초췌해져 우수에 젖어 नी이 나간 상태였고, 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이나 해야 하겠다는 말을 슈티코프에게 했다.¹⁰⁹⁾ 부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5일간 계속되었다.¹¹⁰⁾

그가 평양과 연락이 두절된 채로 덕천에 있을 동안 평양에서는 10월 19일과 20일 양일 동안 급히 방어선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들이 크게 저항하지 못한 채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수중에 떨어졌다.

중국군이 참전하던 무렵 김일성과 덕천에 함께 있다가 팽덕회와의 면담을 위해 김일성과 함께 평북 대동으로 이동해 간 슈티코프가 10월 20일 소련군 총참모부에 북한군의 상태에 대해서 한 보고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인민군의 마지막 부대와 기관이 평양을 떠났다. 적에 대한 저항도 더 이상 없을 것

107) Zhurnal, 1950년 10월 15~20일자.

108)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사적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 4~12쪽.

109) 슈티코프의 가브리엘 코로트코프와의 면담,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제2권, 76~78쪽.

110) 김일성이 옥천에서 10월 20일 평북 대유동으로 옮긴 다음에야 서북 지역의 3개 사단의 상황이 파악되었을 뿐이다. 슈티코프로부터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된 슈테펜코의 스탈린에 대한 10월 20자 일일 상황보고를 통해 볼 때, 김일성은 10월 15~20일 사이에 지도상에서 원산 북쪽 산악지대로부터 소련까지의 국경에 이르는 해안지대 방어와 산악지형을 이용해 장진호, 갑산 지역으로의 입구를 봉쇄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 같으나, 그는 동해안에 어떤 부대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했다. 「소련군 총참모장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0년 10월 20일 8시 00분 현재 조선에서의 전투 활동에 대하여, No. 284133, 1950년 10월 20일 13시 30분」,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181~182쪽.

이다. 만주에서 건너온 중국군 덕분에 총사령부가 압록강 쪽으로의 적 진출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낙오된 인민군 부대와의 통신 재개도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령관과 장교들은 부대에 대한 통솔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사실상 인민군 부대 전원이 몰살됐거나 적의 포로가 된 상태이다.... 김일성은 현재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이며 정부도 군대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이다....¹¹¹⁾

그동안 김일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소련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김일성을 극구 옹호하는 스탈린의 뜻을 어길 수 없어 공식보고에서는 김일성의 무능을 드러내는 보고를 삼가고 있었지만, 10월 말에 가서 그는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이끌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김일성에 대한 신뢰를 바꾸지 않았고 그를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스탈린에게는 중국군 참전으로 인해 북한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입김을 견제하는데 김일성처럼 모스크바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북한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필요했다.¹¹²⁾ 군사적으로는 1950년 10월 19일 2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중국군(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 그들의 초기 작전 성공이 그와 북한군, 노동당, 북한 정부를 파멸로부터 건져주었다.

V. 맺 음 말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의 파멸적인 패배에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잘못된 작전 지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지만 북한군의 고급지휘관들도 면책될 수는 없다. 그 패배 원인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고위 지휘관들이 북한군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9월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산점령을 위한 신공세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에 있었다. 이미 중국측으로부터 9월부터 낙동강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철수를 함으로써 군의 주력을 보존하고 적을 끌어들이 분할, 타격하라는 전략 조언을 받은 상태였지만, 김일성과 북한 군부 지도층은 그러한 의견에 대해 묵살했다. 9월 중순에는 이미 전방으로부터의 유류 공급이 중단되었고, 많은 화포들이 포탄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신병들

111) 코로트코프, 『김일성과 스탈린』 제2권, 75~76쪽.

112) 코로트코프, 『김일성과 스탈린』 제2권, 76, 78~79쪽.

에게 나누어줄 소총도 부족하게 되었고, 병사들은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던 상황을 그들은 도외시켰다. 그들은 곧 남한에서 추수가 이루어져 ‘만기현 물세’를 징수한다면 식량문제가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포탄과 유류, 배터리 등 다른 보급품들은 현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지도부의 작전 지도는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의 군사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무엇보다도 낙동강에서 주력부대의 철수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서울의 장기방어도 가능했을 것이며, 적어도 1950년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북한군이 당했던 것과 같은 파멸적 패배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탈린은 8월 말에 북한군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세를 계속하고자 하는 김일성을 고무한 점에 있어서는 큰 잘못을 범했지만, 인천상륙 이후 낙동강선의 주력사단들을 빼내 서울방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으로 지연전을 시행하면서 군의 보존을 꾀하라는 9월 18일에 내린 ‘4개 사단’ 북상 명령은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인천의 위기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하 부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는 스탈린의 지시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해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모호한 명령을 내렸고, 현지 부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김책, 김웅은 그 명령을 자의로 해석해 최소한의 병력만을 북상시켰다. 아마도 그들 역시 이때까지도 ‘부산 점령’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군이 영등포와 노량진을 점령한 9월 21일 이전까지는 적어도 서울-김천간의 통신이나 연락은 가능했으나 그 후로는 그마저도 차단되었다. 전선의 전황에 대해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또한 적시에 명령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낙동강 전선의 14개 주력 사단을 포위망 안에 빠뜨렸다. 그 파국의 책임은 김일성과 김책, 그리고 김웅에게 있었다.

서울 점령과 낙동강 전선 붕괴 이후 38선 이북에 남아 있던 북한군의 무기력한 패배는 그동안 후방에서 많은 수의 예비연대만을 창설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이들을 숫자는 작지만 좀 더 능력 있는 부대로 육성하지 못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많은 부대들을 창설하느라 간부의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고, 그나마 부족한 수량의 화포와 장비가 많은 부대들에게 분산 분배됨으로써 각 부대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은 모든 부대에서 보잘 것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김일성이 9월 말에 여러 번 되뇌 ‘남한에서 9개 사단 편성, 북한에서 6개 사단 편성’은 그가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도외시킨 채 사단 수, 부대 수만을 늘리는데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다. 훈련 부족, 전반적인 사기 저하와 함께 취약한 화력을 가진 부대들로부터 전투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렇다면 왜 소련은 좀 더 일찍이 북한에게 신편 사단을 편성할 장비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북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 소련측이 신편 사단들을 무장할 무기들을 보내지 않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평했다. 소련측으로서 이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명할 여지가 있었다. 그들은 9월 23일에 평양에 보낼 Yak-9 항공기들의 운송방법을 고려했고, 10월 초에는 6개 사단을 장비할 무기 일체를 만주를 경유해 수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¹¹³⁾ 그러나 급속한 UN군의 북진과 북한군의 붕괴로 인해 그 무기들이 적의 손에 들어갈 것을 염려해 전량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궁금한 것은 왜 좀 더 일찍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북한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무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이 북한이 요청한 모든 무기를 제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는 소련은 지원한 무기에 대해서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그는 새로운 무기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소련은 북한 조종사의 능력을 불신해 제트전투기 공급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에 미국의 제트전투기에 Yak-9 전투기(프로펠러기)가 상대가 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과 바실레프스키는 인천상륙작전 후에 북한에 또 다른 프로펠러 전투기인 La-9의 추가 공급을 통해 평양 상공을 엄호할 방안을 고려했다. 그것으로는 미 공군의 활동을 어느 정도 곤란케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제트 전투기를 공급해도 이를 조종할만한 조종사가 없었던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원고접수일 : 2010.11.4, 심사완료일 : 2010.11.25, 게재확정일 : 2010.11.30)

113) 「소련 육군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평양의 엄호를 위해 제32전투비행사단 예하 제304전투비행대대를 파견하는 조치에 대하여, 1950년 9월 23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12~113쪽;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정보조사서, 1950년 10월 15일까지 (6개 보병사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할 무기들과 1950년 10월 21일 공급된 기본 무기 종류 목록」(날짜 불명, 그러나 10월 11일 수령 직인이 있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85~186쪽.

(국문초록)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 김 광 수 -

한국전쟁 중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일대 사건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맥아더가 적을 기만하고 작전계획에 대한 기도비닉을 달성함으로써 완벽한 기습을 달성했다는 점이 이 작전의 주된 성공 요인으로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북한이 사전에 이를 사전에 예측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자료를 검토하기까지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박명림은 처음으로 인천지역에 주둔했던 북한군의 작전문서를 UN측 노획문서군에서 찾아내 검토함으로써 북한군은 인천이 상륙지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는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인천상륙은 결코 기습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천에 상륙한 UN군이 서울을 점령하기까지 13일이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인천상륙을 전후한 시기의 북한측 사료와 구 소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과연 북한은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이 작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인천에 UN군이 상륙한 이후 북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태에 대해 대응하고자 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인천상륙을 전후한 북한의 대응을 면밀히 재구성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부터 그들의 점령지 배후로 UN군이 상륙해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 방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에서 인천은 주요 상륙 예상지점으로 고려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인천이 반드시 상륙지점일 것이라는 정보를 갖지 못했고 인천을 비롯한 전 해안지역에 대한 방어대책을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공세’라고 부른 9월 공세를 시행하면서 후방 방어보다는 모든 전력을 낙동강전선에 투입했다. 9월 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김일성은 후방의 반상륙대책 강화보다는 또 한 번의 공세를 준비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썼다. 상륙 며칠 전 목포, 군산 지역에 UN군의 양동이 시행되었을 때 앞으로 상륙작전이 있을 것인지,

만약 상륙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없었다.

둘째, 인천상륙이 이루어진 이후 김일성과 북한군 지도부는 인천상륙의 심각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낙동강선에서 또 한 번의 공세를 취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낙동강선에서 일부 전투 사단들을 서울로 북상하게 해 서울 서측방 방어를 강화하는 대신, 최용건의 서해안 사령부가 경인지역 주변의 예비 연대 및 여단만으로 서울방어에 임하게 했다. 스탈린은 9월 18일 김일성에서 낙동강선에서 ‘4개 사단’을 북상하게 해 서울서측 방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전선사령관 김책과 그의 참모장 김웅의 반대에 직면에 극히 적은 병력만을 서울로 전용했다. 김일성은 또한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주력의 철수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그가 뒤늦게 철수명령을 내릴 무렵에는 이미 미 제8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함으로써 부대들이 조직적 철수를 시행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과 북한군 지도부는 전략적 작전지도의 미숙성으로 인해 북한군 주력이 UN군의 인천상륙으로 인해 포위망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중국과 소련의 일부 지도자들은 북한군이 8, 9월 공세에서 실패하자 주력의 철수를 통해 후방의 강화를 조언했으나 김일성과 북한군 수뇌부는 ‘최후공세에 의한 전 한반도 점령’의 희망적 사고를 버리지 않았다. 인천상륙작전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들은 후방에 대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군 주력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제어 : 인천상륙, 김일성, 스탈린, 한국전쟁, 북한군, 인민군, 소련 김책

(Abstract)

The Inchoen Landing Operation and Response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 Kim Gwang Soo -

The Inchoen Landing Operation commanded by General MacArthur in the Korean War has drawn attentions from many scholars as a milestone that had changed the course of wa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s success was attributed to MacArthur's achievement of the impeccable surprise attack by deceiving the enemy and concealing the operational plan.

Whether North Korea had foresee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has yet been confirmed until concerned documents of North Korea were examined. Myeng Rim Park was the first to discover among archives seized by the United Nations (UN) operational documents of North Korean Forces stationed in Incheon area and to investigate them. Based on new information obtained from his research, he asserts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was never a surprise attack", for North Korean Forces had known in advance that Incheon would be the landing location and taken measures to prepare for the possible attack. Precisely for these reasons, he explains, it took 13 days for the UN Forces to capture Seoul even after they had landed at Incheon.

This paper intends to study how accurate the North Korean prediction had been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before its execution and in what ways North Korea planned to respond to this new development after the UN landing by comprehensively investigating North Korean and Soviet records around the tim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Clos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response around the Incheon Landing results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befor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North Korea had taken measures to reinforce the coastal defense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UN Forces landing at the rear of the occupied

areas, and Incheon had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likely landing locations. However, North Korea could not obtain intelligence that the city was *the* landing spot, and therefore attempted to take defensive measures on all coastal areas including Incheon. However, when Il Sung Kim launched the September offensive called the "Ultimate Offensive" in the Nakdong lines, he committed all military strength into the Nakdong lines rather than balancing the rear defense. Even after the September offensive failed, he concerned more about preparation for another offensive in the front than about anti-landing reinforcement in the rear. Even just few days before the landing, when the UN Forces carried out feint operations in Mokpo and Goonsan areas, North Korea could not make a reliable prediction of whether a landing operation was planned to be executed in the near future, and even if there is such a plan, where it would take place.

Second, after the Incheon landing did take place Il Sung Kim and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hip underestimated the gravity of the landing. Possessed by ambition for another offensive in the Nakdong lines, they ordered West Coast Command under Yong Gun Choi to defend Seoul only with reserve regiments and brigades stationed around Seoul and Incheon instead of redeploying some battle divisions in the Nakdong lines up into Seoul to reinforce the city's western side defense. On September 18 Stalin gave Il Sung Kim instructions to redeploy "four divisions" northward from the Nakdong lines and therefore to reinforce Seoul's western defense. These instructions, however, were confronted by oppositions from Front Commander Chaek Kim and his chief of staff Woong Kim, and as a result, only extremely small forces were relocated to Seoul. In addition, Il Sung Kim wasted precious time when he had not immediately ordered withdrawals of the main body of the army from the Nakdong Defense Line; by the time he gave the withdrawal order, the US 8th Division had already broke through the Nakdong Defense Line and North Korean troops were unable to carry out organized withdrawals.

In conclusion, with immaturity of strategic operational leadership, Il Sing Kim and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could not prevent the main body of the North Korean Forces from being entrapped into the encircling net created by UN Forces landing at Incheon. Some Chinese and Soviet leaders had advised to withdraw the main body and to reinforce the rear after the North Korean failure of the August and September offensives, but Il Sung Kim and North Korean People's Army leaders refused to abandon the optimism of "Occupation of All Korean Peninsula by Ultimate Offensive." Even after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had been carried out, they did not make a prompt response to the threat at the rear, thus resulting in the destruction of the military main body.

Key Words : Inchon Landing Operation, Il Sung Kim, Stalin, Korean War, North Korean Forces, People's Army, Soviet Union, Chaek Kim



참고문헌

1. 가브리엘 코로트코프, 어건주 옮김(1993), 『스탈린과 김일성』 I-II, 동아일보사.
2. 국방군사연구소(1995),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3),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4. 군사편찬연구소 역(200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5. 군사편찬연구소 역/편(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군사편찬연구소.
6. 김계동(2000),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대학교출판부.
7. 박길룡·김국후(1994), 『김일성 외교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4).
8. 박명림(1997),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전략연구』 제4권 제2호(1997).
9. _____(2002),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10. 서상문(2006), 『모택동과 6·25전쟁: 파병 결정과정과 개입동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 외무부 역, 「한국전쟁 문서요약」(1994), 부록 「김일성-스탈린-모택동 간의 전문 및 서신」.
12. 이상조-황용주 대담(1990), “김일성은 모택동의 후퇴충고를 묵살했다,” 『월간 중앙』 8월호.
13. 이상호(2006),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
14. 이창건(2005), 『KLO의 한국전 비사』, 지성사.
15. 일본 육전사보급회 편(19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 4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6. _____(198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5: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 명성출판사.
17. 장학봉 외(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18. 전현수(2001), “소련 공군의 한국전 참전”,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한국 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1959),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조선로동당출판사.
20. 주영복(1991),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고려원.
2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군사편찬연구소 역(200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2. 중앙일보사 편(1977), 『민족의 증언』 제2권, 을유문화사.
23. 최광(2001), 「문화부사령관 동무 앞」(1950년 9월 24일),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편, 『6·25 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4. 코로트코프(가브릴), 어건주 역(1993), 『스탈린과 김일성』, 동아일보사, 편자 미상,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천마, 1989).
25. 허종호 외(1981), 『조국해방전쟁사 2』(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6.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사적지』(1981),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27. 「1950년 10월 11일 방송자료 김일성장군의 연설」(1950년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21~23쪽.
28. 「로련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1950년 9월 18일), A. V. Torkunov, *Zagadochinaia voina: Koreiskaia konflikt 1950~1953 godov*(Moskva: ROSSPEN, 2000), 원 출처는 AP RF, Fond 45, Opis 1, Delo 331, Ll. 123~126.
29. 「미 극동군 포로심문보고서」, No. 1555, 1556, 1557,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 관계사료집』 제25권, 461~462, 463~464, 465~467쪽.
30. 「북조선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대표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 전선의 상황에 대하여, 평양에서, No. 1298, 1950년 9월 27일 12시 35분」,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31.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소련 전문가들과 소련 기관 직원들의 소환 절차에 대한 결정 초안, No. 182-Sh, 1950년 9월 30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32. 김광수(1999),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
33. 김일성,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9월 17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4. _____, 「모란봉지하극장을 훌륭히 건설하자」(모란봉지하극장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일군 및 평안남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50년 9월 23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5. _____, 「일시적 전략적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9월 27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6. _____, 「전시조건에 맞게 체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50년 9월 15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7. _____, 「지방방어를 조직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7월 29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8. _____,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내무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8월 29일), 『김일성전집』 제12권.
39. 「소련 육군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평양의 엄호를 위해 제32전투비행사단 예하 제304전투비행대대를 파견하는 조치에 대하여, 1950년 9월 23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40.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정보조사서, 1950년 10월 15일까지 (6개 보병사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무기들과 1950년 10월 21일 공급된 기본 무기 종류 목록」(날짜 불명, 그러나 10월 11일 수령 직인이 있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85~186쪽.
「소련군 총참모장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0년 10월 20일 8시 00분 현재 조선에서의 전투 활동에 대하여, No. 284133, 1950년 10월 20일 13시 30분」,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81~182쪽.
41. 「슈티코프가 외무성 그로미코 동지에게, 상부 보고를 위해」(1950년 9월 2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3)』.
42. NARA, RG 242, Shipping Advice 201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0070호」(1950년 10월 14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지령: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70호 집행을 위한 사업조직에 대하여」(1950년 10월 15일, 평양시).
43. NAR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제107보련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 전선지구 경비사령관 박훈일 참모장 백락철, 「전투명령」 No. 3 (1950. 8. 28

서울에서), 「전투명령」 No. 100 (1950. 8. 27 16:00 서울에서), 「전투명령」 No. 105 (1950. 8. 31 서울에서), 「전투명령」 No. 106 (1950. 8. 31 서울에서), 인천 지구 방어사령관 박훈일, 「전투명령」 No. 4 (1950. 9. 9. 서울에서).

44. NAR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제107보병련대 참모부, 「하급명령서철」-제107보병련대장 최한 참모장 김영모, 「명령 No. 9」 (1950. 9. 13 12:45 김포에서), 「명령 No. 10」 (1950. 9. 13 김포에서), 「명령 No. 11」 (1950. 9. 14 20:00 김포에서), 「명령 No. 12」 (1950. 9. 14 김포에서), 「명령 No. 14」 (1950).

- 영문 자료 -

1.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S GPO, 1960).
2.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1987).
3. Ciphred Telegram, "Telegram from Stalin to Soviet Officials in Pyongyang, 1 October 1950," *CWIHP Bulletin*, Issue 14/15 (Winter 2003-Spring 2004).
4. Ciphred Telegram, "Chan Fu (Stalin) to Matveyev(Zakharov), 2 October 1950", *CWIHP Bulletin*, Issue 6/7 (Winter 1995).
5. Ciphred Telegram,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Matveyev(Army General M. V. Zakharov) and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 F. Shtykov, approved 27 September 1950 by Soviet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 translated by Alexandre Y.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6. Collins, Lawton J.,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 (Boston: Anchor Books, Doubleday, 1969).
7. GHQ, UNC, Appendix 1 To Annex C (Intelligence) of Operations Order No. 1.
8. Goncharov, Sergei N. et als.,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9. Heinl, Robert Jr., *Victory At High Tide: The Inchon Seoul Campaign* (Philadelphia and New York: J. B. Lippincott Co., 1968).
10. James, Clayton, *Refighting the Last War: Command and Crisis in Kroeae, 1950~1953*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11. Jian,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12. Karig, Walter,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hinehart and Company, Inc., 1952).
13. Montross, Lynn & Nicholas A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Washington D. C.: Headquarters U. S. Marine Corps, 1955).
14. Ridgway, Matthew B.,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1967).
15. Stanton, Shelby L., *America's Tenth Legion: X Corps in Korea, 1950* (Berryville VA: Presidio Press, 1989).
16. US Far East Command,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typescript, 1952).
17.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18. EUSAK, 164-MISDI-1156 제43사단 손영관 상위 포로진술 : 164-MISDI-I-1155(22 October 1950) 평양경위여단 김경섭 소위 포로진술 : 164-MISDI-1148(22 October 1950) 평양방어땅크연대 김병준 중위 포로진술.
19. FEC, ADVATIS-1142(13 Oct 50)제17땅크여단 강희구 중위 포로진술 : ADVATIS-1174(17 Oct 50)제1군단 공병군관 백종윤 중위 포로진술 : ADVATIS-1084 안찬호 소위(제1군단 사령부 연락군관)포로진술 : ADVATIS-1028 박규일 소위(제1군단 후방사령부 연락장교)포로진술 : ADVATIS-1029 김문길 소위(제1군단 통신군관)의 포로진술 : ADVATIS FWD RPT #1042(24 October 1950)제43사단 박창일 소좌 포로진술 : ADVATIS FWD RPT #0191(29 October 1950)제43사단 이억주 대위 포로진술 : ADVATIS FWD RPT #0177(28 October 1950)제45사단 제75연대 김유흥 중위 포로진술.
20. Headquarters X Corps, "Operation Chromite"(15 August-30 September 1950) 제27여단 이철궁 중좌 포로진술.

- 러시아문 자료 -

1. Lototskii, S. S., & N. L. Volkovskii (eds.), *Voina v Koree 1950~1953* (Sankt-Petersburg: Poligon, 2000).
2. Matsulenko, V. A., *Koreiskaia narodnaia armiia* (Moskva: Voennoe Izdatel'stvo, 1959).
3. Torkunov A. V., *Zagadochnaia voina: Koreiskaia konflikt 1950~1953 godov* (Moskva: ROSSPEN, 2000).
4. TsAMO RF, Fond 5, Opis 918795, Delo 124, Ll. 124, 136~140.
5. TsAVMTs GSh VS RF (Arkhir-TsAMO-A) Fond 16, Opis 3139, Delo 133 "Zhurnal boevykh deistvii v Koree s 28 iunia 1950 g. po 31 dekabria 1951 g." (조선전쟁전투일보, 1950년 6월 28일[25일]~1951년 12월 31일).

- 중문 자료 -

1.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
2. 中華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北京: 人民出版社, 1997).